



COCO CRUSH

SOME ENCOUNTERS YOU WEAR FOREVER
RINGS, EARRINGS AND COCO BRACELETS IN BEIGE GOLD,
WHITE GOLD AND DIAMONDS.

CHANEL

FINE JEWELRY

THE CLASS

MEMBERSHIP MAGAZINE

VOL.61
2023
SPRING



PREVIEW

BRAND STORY

열쇠고리부터 한정판 신차까지
세 꼭지별로 빛난
‘2023 서울모빌리티쇼’

PREVIEW

The Star is Reborn
Mercedes-AMG
The new SL 63 4MATIC+

REVIEW

궁극의 전기 프리미엄 SUV
Mercedes-EQ
The new EQS SUV



ISSN 2384-0552 7,000원

더클래스 효성이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The Class Hyosung

Experience Future with
Premium Lifestyle Provider



더클래스 효성은
세계 최고의 명차로 인정받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식 딜러이며 자동차의 디지털화,
친환경화라는 트렌드를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 선도하고
있습니다. 더클래스 효성은 고객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 여러분의 품격과 명성에 걸맞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과
가장 먼저 미래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최고의 딜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Showroom 전시장

강남대로 전시장 : 02-575-7500
분당 정자 전시장: 031-786-6000
송파 전시장 : 02-3434-4000
안양 평촌 전시장 : 031-689-8900
청주 전시장 : 043-299-9000
천안 전시장 : 041-620-7000
구리 전시장 : 031-579-0900
용인 수지 전시장 : 031-5183-9200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 031-8072-8900
동탄 전시장 : 031-880-0200
인증 중고차 죽전 전시장 : 031-786-6171
인증 중고차 하남 전시장 : 02-3433-1999
인증 중고차 천안 전시장 : 041-555-5070
Mercedes Café by The Class Hyosung :
031-8072-8902

Service Center 서비스센터

강남대로 서비스센터 : 02-570-1111
서초 서비스센터 : 02-3488-2400
도곡 서비스센터 : 02-575-7340
신사 서비스센터 : 02-540-7900
송파 서비스센터 : 02-2152-3333
안양 평촌 서비스센터 : 031-596-2600
죽전 서비스센터 : 031-786-6100
용인 수지 서비스센터 : 031-290-3700
구리 서비스센터 : 031-579-0970
하남 서비스센터 : 02-3433-1900
동탄 서비스센터 : 031-880-0288
청주 서비스센터 : 043-299-9090
천안 서비스센터 : 041-620-7070

AUDEMARS PIGUET

Le Brassus

상상 그 너머의 세계



코드 11.59 바이 오데마피게
스타힐

CONTENTS

THE CLASS
Membership Magazine

VOL.61 Edition
2023 SPRING



COVER

이번에 국내 출시한 Mercedes-AMG
The new SL 63 4MATIC+.
Mercedes-AMG SL의 7세대 모델이다.

발행처

더클래스 효성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발행일

2023년 4월 26일

발행인

이철승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강남 바 00105

www.theclasshyosung.com

기획·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 <THE CLASS>는 더클래스 효성 고객을 위해 발행하는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입니다.
- <THE CLASS>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THE CLASS>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TRO

08 BEAUTY

새 봄, 새 향수

10 FASHION

A New Bag

12 GEAR

너의 이름은



12

BRAND



20

14 BRAND STORY

세 꼭지별로 빛난
'2023 서울모빌리티쇼'

20 ISSUE

혁신에 대한 열정, 몽클레르 입은
Mercedes-Benz G-Class

24 EXPERT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로의 변신
메르세데스-벤츠 'MB.OS'

28 INTERVIEW

2022년 세일즈 마이스터
이기복 부장

30 MEET

2022 더클래스 효성 우수 사원

34 PEOPLE

더클래스 효성 최초 공식 앰배서더
'더스타즈'

38 PREVIEW

The Star is Reborn,
Mercedes-AMG
The new SL 63 4MATIC+



38

THERE IS ETERNITY IN EVERY BLANCPAIN

The spirit to preserve.

"Creation"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2021
Grand Title winner
© Laurent Ballesta



70th
Fifty Fathoms
70th anniversary



A Fifty Fathoms is for eternity.

Launched in 1953, the Fifty Fathoms is the first modern diver's watch. Created by a diver and chosen by pioneers, it played a vi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scuba diving. It is the catalyst of our commitment to ocean conservation.

JB
1735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CONTENTS

BLING



40

40 TRAVEL WITH BENZ

왕족의 유배지, 실향민의 섬
교통도에 꽃피우는 화개정원

46 REVIEW

궁극의 전기 프리미엄 SUV,
Mercedes-EQ
The new EQS 580 4MATIC SUV

50 #SCENE

유럽인이 사랑하는 휴양의 섬
Mallorca in Spain

BEYOND



56 MASTERPIECE

손끝 예술의 정수(精髓), 매듭장 정봉섭

62 CLASS

최고와 최고의 만남, 드롱기와 함께하는
No.1 커피 클래스

64 ART

마우리치오 카텔란 개인전 <WE>
삶의 껍투를 찌른 '미술계 침입자'

68 CURATION

전통, 낡음을 벗고 트렌드를 입다

70 NEWS

74 FOR READERS



46

The new EQE, This is for all senses

더클래스 효성에서 메르세데스-EQ 브랜드만의
럭셔리한 디자인과 수준 높은 편의성을 경험해 보세요.



시승 신청

더클래스 효성

instagram.com/theclasshyosung/
www.youtube.com/@TheClass_Hyosung
facebook.com/ilovetheclasshyosu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 강남대로 전시장 02)575-7500 ■ 송파 전시장 02) 3434-4000 ■ 분당 정자 전시장 031) 786-6000 ■ 안양 평촌 전시장 031) 689-8900 ■ 구리 전시장 031) 579-0900
■ 용인 수지 전시장 031) 5183-9200 ■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031) 8072-8900 ■ 청주 전시장 043) 299-9000 ■ 천안 전시장 041) 620-7000 ■ 동탄 전시장 031) 880-0200
■ 인종중고차 하남 전시장 02)3433-1999 ■ 인종중고차 죽전 전시장 031) 786-6171 ■ 인종중고차 천안 전시장 041) 555-5070 ■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새 봄, 새 향수

다섯 가지 나무 향으로 물든 '레 소메 몽클레르'.

봄이다. 겨우내 사용하던 '묵직한' 향 대신 싱그러운 향수로 기분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 기왕이면 이제 막 선보인 신상 향수면 더 좋겠다. 명품 브랜드 몽클레르가 '레 소메 몽클레르' 향수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였다. 콘셉트는 명확하다. 몽클레르가 산악용품으로 명성을 떨친 만큼, 높은 산을 향해 돌진하는 산악인의 '도전 정신'을 모티브로 삼았다. 특히 5종의 향수 제작에 참여한 6명의 조향사는 각기 다른 나무 향에 집중했는데, 이를테면 짙은 베티베르 향을 품은 '르 부와 글라스'와 인도네시아 파출리 향이 숲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레 로쉬 누와'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이 봄과 가장 잘 어울리는 향수로 추천하는 제품은 바로 '라 코르데',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길'과 '별이 빛나는 밤' 등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에서 보던 사이프러스나무 향을 시작으로 흥차임과 베르가모트 향이 조화롭게 어울린다.

Editor 이승률 Photo 박도현 문의 코익 080-800-8809



더클래스 효성 온라인 스토어

완전히 새롭게, 가장 빠르게
온라인 상으로 만나는 더클래스 효성 스토어



더클래스 효성 온라인 스토어

더클래스 효성

[instagram.com/theclasshyosung/](https://www.instagram.com/theclasshyosung/)
www.youtube.com/@TheClass_Hyosung
facebook.com/ilovetheclasshyosu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 강남대로 전시장 02) 575-7500 ■ 송파 전시장 02) 3434-4000 ■ 분당 정자 전시장 031) 786-6000 ■ 안양 평촌 전시장 031) 689-8900 ■ 구리 전시장 031) 579-0900
 ■ 용인 수지 전시장 031) 5183-9200 ■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031) 8072-8900 ■ 청주 전시장 043) 299-9000 ■ 천안 전시장 041) 620-7000 ■ 동탄 전시장 031) 880-0200
 ■ 인종중고차 하남 전시장 02) 3433-1999 ■ 인종중고차 죽전 전시장 031) 786-6171 ■ 인종중고차 천안 전시장 041) 555-5070 ■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A New Bag

필드에서 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골프백.

골프 실력은 물론, 패셔너블한 필드 위 패션도 눈길을 끌기 마련이다. 특히 멋쟁이 골퍼들은 골프웨어뿐 아니라 신발과 모자, 벨트 등 다양한 액세서리로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한다. 골프백도 빼놓을 수 없다. 데일리 룩에서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듯, 멋스러운 골프 백은 골퍼들의 애지 있는 감각을 드러낸다. 스타일에 민감한 골퍼라면 하이엔드 골프웨어 브랜드 어뉴골프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터. 과감한 컬러와 스타드 장식, 강렬한 패턴 등 스트리트 감성을 담은 골프웨어로 '돌풍'에 가까운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배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 골프백 역시 남다른데, 캐주얼한 감각이 돋보이는 보스턴백은 필드에서뿐 아니라 워크엔드 룩에도 매치가 가능할 정도. 바퀴와 높이가 조절 가능한 손잡이를 장착해 이동의 편리함을 극대화한 캐리어에도 패턴을 더해 차별화된 스타일을 뽐낸다. 골프 전문 브랜드 제품인 만큼 휴대성이나 수납을 만족하는 것은 당연지사. 골프장 사물함에도 딱 맞게 들어간다.

Editor 이승률 Photo 박도현 문의 어뉴골프 1833-4354



The World of Driving Performance

Mercedes-AMG

강력하고 독보적인 퍼포먼스 Mercedes-AMG
지금 바로 더클래스 효성에서 시승해보세요!

AMG



시승 신청

더클래스 효성

 [instagram.com/theclasshyosung/](https://www.instagram.com/theclasshyosung/)
 www.youtube.com/@TheClass_Hyosung
 facebook.com/ilovetheclasshyosu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 강남대로 전시장 02)575-7500 ■ 송파 전시장 02) 3434-4000 ■ 분당 정자 전시장 031) 786-6000 ■ 안양 평촌 전시장 031) 689-8900 ■ 구리 전시장 031) 579-0900
 ■ 용인 수지 전시장 031) 5183-9200 ■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031) 8072-8900 ■ 청주 전시장 043) 299-9000 ■ 천안 전시장 041) 620-7000 ■ 동탄 전시장 031) 880-0200
 ■ 인종중고차 하남 전시장 02)3433-1999 ■ 인종중고차 죽전 전시장 031) 786-6171 ■ 인종중고차 천안 전시장 041) 555-5070 ■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너의 이름은

부드러움과 비거리,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름, '로얄'

“이름값 한다”는 말이 있다. 마제스티골프에서 새롭게 선보인 '로얄'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말이다. 로얄의 콘셉트는 '더 트루 게임 체인저'다. 그에 걸맞게 혁신적 신기술이 넘쳐난다. 예로 드라이버와 우드에는 클러치 웨이트 시스템을 적용해 헤드의 무게를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타격의 안정성을 높였다. 0.4mm에 불과한 극박 크라운 개발에 성공해 카본 크라운과 동일한 무게중심 설계를 구현한 티타늄 모노코크 보디는 임팩트 때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 뿐 아니라 부드러운 굴곡과 방사형 동심원 구조를 결합한 3D 에너지아일랜드 페이스 디자인은 매 순간 최고 비거리를 선사한다. 로얄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보는 그대로, 마제스티골프의 독보적 골드와 세련미 넘치는 블랙 두 가지 컬러로 선택의 폭도 넓혔다. 드라이버와 페어웨이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까지 풀 라인업으로 구성했다.

Editor 이승률 Photo 박도현

문의 마제스티골프 코리아 1600-9970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성능 **PERFORMANCE MADE TO LAST.**

WITH THE MICHELIN 'PILOT' RANGE OF TYRES.

MICHELIN® PILOT® SPORT 4⁺ MICHELIN® PILOT® SPORT 4S⁺ MICHELIN® PILOT® SPORT 4 SUV⁺ MICHELIN® PILOT® SPORT CUP 2 R⁺ MICHELIN® PILOT® SPORT CUP 2⁺ MICHELIN® PILOT® SPORT ALL SEASON⁺ MICHELIN® PILOT® ALPIN⁺ 5⁺



미쉐린
멤버십



1899-9120

미쉐린 고객센터
평일 09:00~18:00

구글 플레이와 App Store에서 다운받으세요.



열쇠고리부터 한정판 신차까지 세 꼭지별로 빛난 ‘2023 서울모빌리티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23 서울모빌리티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메르세데스-벤츠는 ‘럭셔리와 전통화’ 전략을 담은 신차와 콘셉트 카 11종을 공개했다. 한편,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은 메르세데스-벤츠 액세서리와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전시·판매 공간을 운영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Writer 김기범 Photo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동현

국내 최대 모빌리티 축제

약 51만 명. 지난 3월 30일 프레스테이를 시작으로, 4월 9일까지 11일 동안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 5개 홀(총면적 53,541㎡)에서 치른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 다녀간 관람객 수다. 이번 서울모빌리티쇼 주제는 ‘지속 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 혁명’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세 가지 부문에 걸친 전시로 관심을 모았다.

서울모빌리티쇼의 전신은 1995년에 시작한 서울모터쇼다. 이후 격년제로 홀수 해마다 치르고 있다. 2021년 제13회부터 서울모빌리티쇼로 이름을 바꿨다. 14회째인 올해는 코로나19가 대유행이던 2021년보다 큰 폭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참가 규모는 총 42개국 163개 기업과 기관으로 13회 대비 60% 늘었고, 전시 규

모와 관람객 수는 두 배 이상 성장했다.

모터쇼는 신차와 콘셉트 카, 신기술과 비전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자리다. 19세기 말, 지역별 자동차 관측 행사로 시작해 20세기 후반 규모와 내용 면에서 정점을 찍었다. 최근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다양해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이 익숙해지며 규모를 줄이기도 했다. 이젠 자동차뿐 아니라 개인 이동 수단, 비행체 등 여러 모빌리티를 아우른다. 그럼에도 다양한 브랜드의 신차를 한자리에서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모터쇼의 효용성은 여전하다. 웬만한 지방 도시 인구와 맞먹는 관람객 수가 이를 방증한다.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메르세데스-벤츠는 압도적 규모의 전시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특히 더클래스 효성이 꾸민 라이프스타일 제품 부스에는 구매 고객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고(故) 버질 아블로와 협업한 프로젝트 마이바흐. 사진 속보다 훨씬 거대하다.

11종의 신차와 콘셉트 카 전시

이번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별이 다시 태어나다(The Star is Reborn)’를 주제로, 모든 헤일로 브랜드(Halo Brand)에 걸쳐 ‘럭셔리와 전동화(Luxury & Electrification)’ 전략을 담은 결실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 최초 공개 모델 1종, 국내 최초 공개 모델 5종을 포함해 총 11종의 신차 및 콘셉트 카를 대거 선보였다.

프레스테이 때 토마스 클라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언론 앞에서 “모두가 선망하는 자동차(the world’s most desirable cars)를 만들겠다는 기본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컬러 조합만으로도 마이바흐를 합하고 트렌디한 세단으로 바꾼 버질 아블로 에디션



메르세데스-벤츠와 몽클레르가 협업한 프로젝트 몬도 G. 만화처럼 과장된 비율이 상상력을 극대화한다.



오리지널의 정체성을 강조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SL. 포르쉐 911의 대항마다.



신형 SL은 4인승, 스포츠룩으로 이전 세대와 뚜렷한 경계를 그었다.



메르세데스-EQ 브랜드의 ‘행동대장’인 EQE SUV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모든 세그먼트에 걸쳐 메르세데스-EQ의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했다. 그 결과 2021년 이 자리에서 약속한 ‘전동화 선도(Lead in Electric)’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메르세데스-벤츠 무대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주인공은 아시아에서 처음 공개한 ‘Project MONDO G’와 국내 최초로 선보인 ‘Project Maybach’였다. 각각 패션 브랜드 몽클레르(Moncler), 패션 아이콘 고(故) 버질 아블로(Virgil Abloh)와 협업한 작품이다. 기발한 발상과 창의적 아이디어, 색다른 분위기로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전 세계 150대 한정판인 Mercedes-Maybach The new S 680 4MATIC Virgil Abloh Edition, 7세대 신형인 Mercedes-AMG The new SL 63 4MATIC+, Mercedes-AMG The new EQE 53 4MATIC+, The new EQE 500 4MATIC SUV도 베일을 벗었다. ‘Mercedes-AMG G 63 K-Edition 20’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0주년을 자축하기도 했다.

Mercedes-AMG G 63 K-Edition 20

4강 신화를 쓴 한일 월드컵의 여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2002년 9월 6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설립되었다.

메르세데스-AMG G 63 K-에디션 20은 지사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모델이다. 메르세데스-벤츠 G-Class에 취향과 개성을 불어넣은 ‘G 마누팩투어(G manufaktur)’ 프로그램을 통해 태극 문양을 연상시키는 두 가지 외장 컬러로 단장했다. 각각 25대씩 총 50대 판매한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은 액세서리 및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부스를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제품군은 유아용부터 성인용까지 남녀노소를 모두 아우른다.



의류는 메르세데스-벤츠 오토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었다.



오래 비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격이 의외로 합리적이다.

라이프스타일에 스며든 세 꼭지별

2023 서울모빌리티쇼의 메르세데스-벤츠 부스에서 정작 관람객들이 가장 오래 머무른 장소는 열쇠고리부터 골프용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아우른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었다.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담당했는데, 메르세데스-벤츠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단장한 공간에서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다. 액세서리와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제품은 기존 오토의 충성도를 높이고, 예비 고객에겐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수입차 브랜드 중 부동의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가 가장 적극적이다. 현재 전국 40여 곳의 매장을 통해 액세서리 4,000종, 컬렉션 제품 1,000종 등 총 5,000가지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은 모형 자동차와 의류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여성들은 골프용품과 액세서리를 유심히 살피는 모습이었다. 세 꼭지별을 앞세운 제품이라면 오래 비쌀 거라고 속단하기 쉬운데, 실제 판매 가격은 생각보다 합리적이다. 예컨대 볼펜은 6,000원, 의류와 토트백은 10만 원 안팎, 리모컨 케이스는 5만~7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다이캐스팅 모델은 특히 젊은 마니아층의 관심을 독차지했다.



전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아이템을 구경하고 살 수 있어 관람객의 반응이 뜨거웠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고객 특성상 골프 관련 용품이 빠질 수 없다.

혁신에 대한 열정 몽클레르 입은 Mercedes-Benz G-Class

명품 자동차와 의류가 하나로 거듭났다. 주인공은 메르세데스-벤츠와 몽클레르의 협업이 낳은 '프로젝트 몬도 G'다. Mercedes-Benz G-Class의 각진 표면과 몽클레르 패딩의 몽글몽글한 패턴은 표현이 다를 뿐 기능성이란 목표를 공유한다. 이 점에서 출발한 도전은 물과 기름처럼 다른 둘을 과감히 하나로 합쳤다. 이 과정에서 두 브랜드는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떴다.

Writer 김기범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프로젝트 몬도 G는 메르세데스-벤츠와 몽클레르 협업의 결실로, 지난 2월 런던 패션 위크 기간에 처음 공개했다.



외계 행성을 무대로 몽환적 상황을 연출한 영상은 SNS를 통해 전파되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세 꼭지별과 몽클레르의 만남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어느 행성. 고요한 밤하늘에서 Mercedes-Benz G-Class가 낙하산을 타고 서서히 내려온다. 만화처럼 과장된 비율의 커다랗고 몽글몽글한 바퀴가 눈길을 끈다. 지붕과 옆면에도 탱탱하게 부푼 패딩을 꼼꼼히 씌웠다. 느릿느릿 지면에 닿는 순간, 사방에서 패딩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몽환적이고 강렬한 이 영상 한 편에 세상의 이목이 쏠렸다.

이 기발하고 위트 넘치는 창작물은 메르세데스-벤츠와 몽클레르의 협업으로 탄생한 '프로젝트 몬도 G(Project Mondo G)'다. 지난 2월, 런던 패션 위크 기간에 몽클레르가 주관한 '아트 오브 지니어스(The Art of Genius)' 쇼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 몽클레르는 메르세데스-벤츠 외에도 예술과 기술, 스포츠, 음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창작에 나섰다. 메르세데스-벤츠와 몽클레르는 혁신에 대한 열정, 간결한 디자인 언어, 다문화 협업에 대한 선구자적 접근 방식을 공유한다. "몽클레르와의 공동 창작은 새로운 브랜드 탄생의 순간을 만들고, 예상치 못한 경험을 제공할 기회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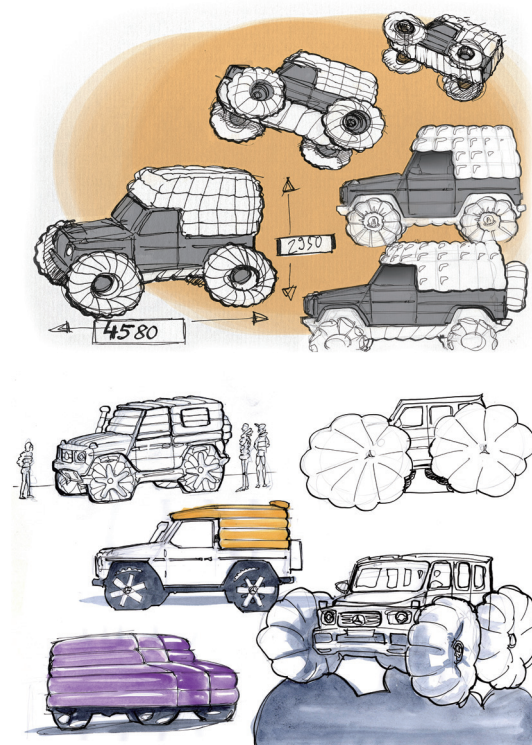
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자 현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마케팅 및 영업 담당 임원 브리타 제거(Britta Seeger)의 설명이다.

등반용 방한복에서 명품 패딩으로

몽클레르의 고향은 프랑스 그르노블의 모네스티에드클레르몽(Monestier-de-Clermont)이란 작은 마을이다. 1952년 프랑스의 산악가이자 발명가 르네 라미용(René Ramillon)이 알프스 노동자를 위한 패딩을 발명했다. 2년 뒤 라미용은 이탈리아의 히말라야 카라코람 탐험대와 협업해 산악 트레킹 때 추위를 효과적으로 막아줄 패딩을 만들었다. 이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카라코람 정상에 밟으면서 라미용은 사업의 가능성을 엿봤다. 라미용은 스포츠용품 유통업자 앙드레 뱅상과 함께 공장을 세우고 본격적인 제조에 나섰다. 패딩뿐 아니라 산악용 텐트와 캠핑 관련 제품도 만들었다. 브랜드 이름은 사업 소재지의 지명 가운데 모네스티에와 클레르몽 각각에서 알파벳 세 글자씩 따서 조합해 완성했다. 몽클레르는 휴가 개념에 눈뜬 프랑스의 시대적 변곡점과 맞물려 빠르



만화처럼 과장된 비율의 커다랗고 몽글몽글한 바퀴를 달고, 지붕과 옆면에 탱탱하게 부풀 패딩을 씌웠다.



몬도 G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스케치 과정이 흥미롭다.



실제 Mercedes-Benz G-Class 대신 모형을 바탕으로 꾸몄다.



차체 표면엔 의도적으로 녹청을 연출했다.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Mercedes-Benz G-Class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타이어 표면의 헬딩다운 마감은 실링 로고를 가려도 몽클레르를 상징하는 요소다.



차체 뒷면은 지퍼를 달아 패딩 이미지를 강조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1925년부터 뉴욕을 4년째 주요 패션 위크의 후원사로 활동 중이다.

게 성장했다. 형태를 유지하고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거위 털을 킬링 다운(누빔) 방식으로 마감했는데, 오늘날 몽클레르를 상징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프로젝트 몬도 G의 타이어와 차체를 감싼 올록볼록한 패딩이 좋은 예로, 로고 없이도 몽클레르란 사실을 암시하는 특징이다.

영상과 사진보다 훨씬 인상적인 실물

지난 3월 30일~4월 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2023 서울모빌리티쇼’는 프로젝트 몬도 G를 실물로 만나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서 처음 공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프로젝트 몬도 G만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 런던에서처럼 극적인 무대효과 없이도 몬도 G는 충분히 빛났다.

몬도 G의 첫인상을 간추릴 표현은 ‘압도감’이다. 극지 탐험을 위해 개조한 차처럼 거대한 바퀴를 달아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메르세데스-벤츠에 따르면 몬도 G의 차체 크기는 길이 4.6m, 너비 3.4m, 높이 2.8m다. 실제 구형 Mercedes-Benz G-Class가 아닌 금속 뼈대에 공업용 진흙을 발라 만든 목업인데도, 상징적 디자인을 구현하느라 무게가 2.5톤에 달한다. 그런데도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귀엽다. 무뚝뚝한 표정의 Mercedes-Benz G-Class가 한 사이즈 작은 몽클레르 패딩을 꾸역꾸역 껴입은 채 각진 몸매를 반쯤 드러낸 모습이 자연스레 웃음을 자아낸다. 물론 메르세데스-벤츠 그

룹 디자인 총괄 고르덴 바게너(Gorden Wagener)의 해석은 진지하고 근사하다. “과도하고 과장된 형태의 언어를 통해 예술을 양극화했지요.”

1979년 탄생한 아이코닉 오프로더

Mercedes-Benz G-Class는 1979년에 탄생했다. 군용과 산업, 레저 등 거친 지형에 개의치 않는 도전적 환경에서 탁월한 신뢰성과 내구성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2018년 지금의 2세대로 거듭날 때까지 원조의 외모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살아 있는 화석’이기도 했다. 심지어 2세대 또한 원조의 디자인 테마를 고스란히 살려 팬들을 감동시켰다. 몬도 G는 순수한 기능 중심의 오브제인 Mercedes-Benz G-Class를 새로운 차원의 디자인 아이콘으로 변환시키는 도전의 결실이다. 오리지널 Mercedes-Benz G-Class의 특징을 간직하되 흥미로운 시각적 대조를 꾀했다. 실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체 표면이 초록색 녹으로 얼룩져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상징하는 사용 흔적을 의도했다”고 설명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차체 일부와 바퀴는 고광택 반사 표면을 씌우고 킬링 다운으로 마감해 명품 이미지를 심었다. 몬도 G를 수놓은 시각적 대위법의 정점은 거대한 지퍼다. 프로젝트 몬도 G를 계기로, 기능성에 대한 두 브랜드의 대조적 해석은 접점을 찾았다. 뚜렷이 다른 정체성만큼 둘의 만남은 더없이 강렬했다. 혁신에 대한 두 브랜드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로의 변신 메르세데스-벤츠 ‘MB.OS’

차세대 자동차를 상징할 키워드로 ‘SDV’가 손꼽힌다. ‘Software Defined Vehicle’의 이니셜로,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지난 2월 22일, 메르세데스-벤츠가 독자적 운영체제 ‘MB.OS’를 사전 공개했다.

2025년 전후로 ‘MB.OS’를 상용화하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자율주행, 무선 업데이트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Writer 김기범(〈로드테스트〉편집장)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메르세데스-벤츠는 MB.OS에 내장된 구글 맵 플랫폼의 차량 내 데이터 및 내비게이션 경험을 구축하는 최초의 자동차 제조사가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서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이 ‘메르세데스-벤츠 운영체제(MB.OS)’를 사전 공개했다.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

“완전한 업그레이드 가능성과 지속적인 개선 기능을 제공할 거예요.” 지난 2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의 행사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올라 칼레니우스(Ola Källenius) 회장이 야심 차게 선언한 내용이다. 이 같은 청사진의 핵심이 바로 ‘MMA 플랫폼(Mercedes Modular Architecture)’과 ‘메르세데스-벤츠 운영체제(MB.OS)’다.

지금까지 자동차는 하드웨어 중심이었다. 브랜드와 차종마다 다른 구동계와 기능마다 각각의 제어 시스템을 갖췄다. 자동차 한 대를 이루는 부품이 3만여 개에 달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열개와 경로가 너무 얽혀 있어 원인 파악조차 어려운 이른바 ‘복잡성의 폭발’ 단계에 이르렀다.

토요타 급발진 리콜과 보잉 737 연쇄 추락이 대표적 사례였다. 하지만 전동화 덕분에 이전보다 자동차 구조가 간단해지고 부품 수가 줄면서 중앙에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① 소프트웨어(Operating System, OS) ② 전자제어 유닛(Electronic Control Unit, ECU) ③ 고성능 AP(Application Processor)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따라서 업계에선 이들 요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PC방·화상회의실로 변신 가능

메르세데스-벤츠는 MB.OS에 내장된 구글 맵 플랫폼의 차량 내 데이터와 내비게이션 경험을 구축하는 최초의 자동차 제조사가 될 전망이다. 향후 메르세데스-벤츠의 신차는 MB.OS를 통해 실시간 및 예측 교통정보, 자동차 경로 변경 등을 포함한 구글의 지리 공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또 레벨3 자율주행 중 유튜브 앱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구글에서 제공하는 전 세계 2억 개 이상의 비즈니스 및 장소의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방문을 원하는 식당의 영업시간과 사진, 리뷰 등의 정보가 좋은 예다. 전기차의 정확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 관리도 가능하다. MB.OS가 충전 상태 및 에너지 소비 같은 차량 데이터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인포테인먼트 기능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예컨대 ‘एं트스트림(Antstream)’과 제휴해 차량 안에 레트로 아케이드 게임 플랫폼을 도입한다. ‘웹엑스(Webex)’와 ‘줌(Zoom)’을 추가해 차량 내 화상회의의 솔루션을 확보할 예정이다. MB.OS의 선행 버전은 3세대로 거듭난 MBUX와 더불어 The new E-Class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초당 254조 회 작업=자율주행

차세대 미국 SAE(자동차기술자협회) 레벨2 자율주행은 기계 학습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사람처럼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자율주행을 위한 포괄적 센서 세트는 향후 적용할 MMA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도시 주행에 초점을 맞춘 레벨2를 시작으로, 최대 시속 130km까진 레벨3도 제공할 방침이다. 참고로 자율주행 기술은 0에서 5까지 총 6단계로 나뉜다. 레벨0는 자율주행 관련 기능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수동 운전이다. 레벨1은 운전자 지원, 레벨2는 부분 자동화다. 레벨3는 조건부 자동화인데, 실질적 자율주행의 첫 단계로 분류한다. 시스템이 요청하기 전엔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다. 레벨4는 무인 택시, 레벨5는 운전 장치조차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완전 프로그래밍 및 업데이트 가능한 운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엔비디아(Nvidia)’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자율주행의 두뇌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오리진 시스템 온 칩’. 차량 주변을 촘촘히 감시하는 라이다(lidar)를 비롯한 각종 센서로부터 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초당 무려 254조 회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유연한 업그레이드 제공

MB.OS를 적용하면 차량 무선 업데이트(Over The Air, OTA)의 범위도 한층 늘어나고, 과정 또한 더없이 매끄러워진다. 이를테면 차량 구입 후 3년이 지나 오히려 전비가 더 좋아진다는지, 출시 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능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만큼 감각상각의 속도를 늦춰 해당 차종의 가치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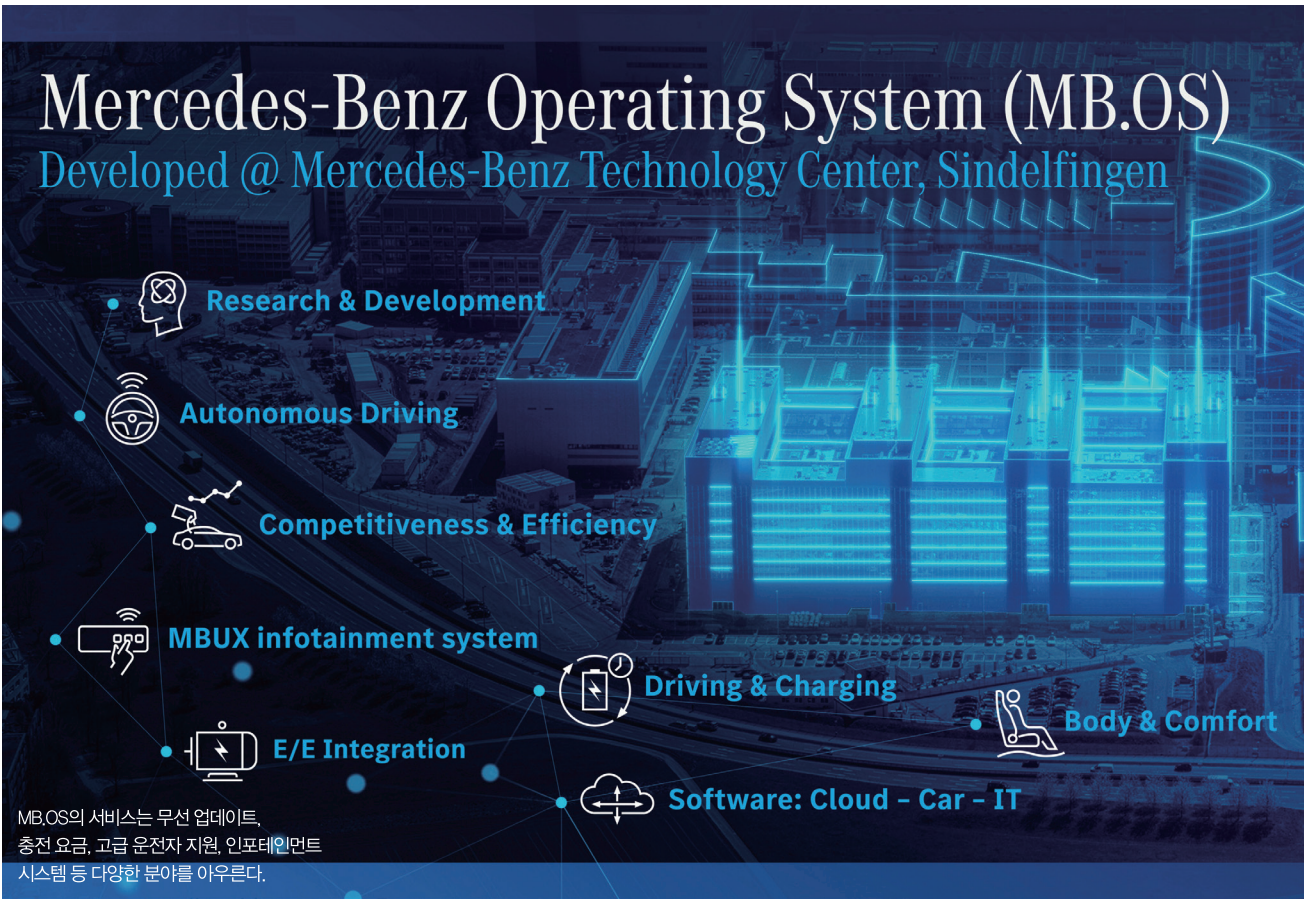
이 모든 서비스의 허브는 ‘메르세데스 미(Mercedes me)’ ID다. 그 결과 고객은 완벽히 개인화되고 편리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MB.OS 바탕의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번들로 나뉜다. MB.커넥트(Connect)는 무선 업데이트, MB.차지(Carge)는 충전 요금, MB.드라이브(Drive)는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아우른다. MB.OS를 도입하면 온라인 옵션 구매도 한층 쉬워진다. 하드웨어를 합리적 가격에 사서 필요한 만큼만 구매 또는 구독으로 쓰는 개념이다. 이미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는 온라인 지도 업데이트 등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로 10억 유로 이상 매출을 올렸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향후 5년 동안 연구 개발 예산의 25%를 소프트웨어에 쓸 예정이다.



MB.OS의 선행 버전은 3세대로 거듭난 MBUX와 더불어 신형 E-Class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의 퍼즐을 완성하는 중이다.



2022년 세일즈 마이스터 이기복 부장 성실함으로 쌓아 올린 신뢰감

지난해 누적 판매 1,000대를 달성하며 세일즈 마이스터에
선정된 더클래스 효성 강남대로 전시장 이기복 부장을 만났다.
고객들에게 편안하고 믿음직스럽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성실과 신뢰를 자신의 영업 비결이자 원칙으로 꼽았다.

Writer 김현정 Photo 임익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뿐, 비결 따로 없어

판매 경로가 다각화되며 온라인에서도 자동차를 사고파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럼에도 고객과 직접 만나 관계를 다져가며 영업을 하는 것이 영업사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이기복 부장은 오프라인에서 만난 고객에게 좋은 차를 소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내의 유명 자동차 브랜드를 거쳐 지금 자리에 있기까지 25년 넘는 시간을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지낸 그는 더클래스 효성과 인연을 맺고 10여 년 만에 세일즈 마이스터가 된 베테랑이다. 세일즈 마이스터는 누적 판매 1,000대 달성한 영업사원을 말하는 데 지금까지 더클래스 효성에서 강미진 부장, 권장섭 부장, 문선희 부장, (고)조성규 부장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이기복 부장까지 총 5명 뿐이다. 기존 고객 소개로 새로운 고객과 인연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고객들 덕분에 매년 100대 이상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랜 기간 함께해온 고객 중엔 20년 지기도 있다. 고객과의 교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에게 특별한 영업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질문을 던지자 ‘성실과 신뢰’라는 다소 싱거운 대답이 돌아왔다.

“구매 과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영업사원이 성실해야 고객도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고객 스스로 ‘내가 이 사람에게 차를 사서 손해 본 것은 없다’는 마음이 들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복 부장은 신뢰를 쌓으려면 계산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간적인 정을 주고받으면서 고객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저 제 역할을 다하다 보면 실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기본에 충실한 영업 전략과 함께 이기복 부장이 고객 관리의 핵심으로 삼는 것은 고객 만족이다.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

는 가장 간단하면서 근본적인 방법이다.

“누가 타는 차인지, 용도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상담을 거쳐요. 구입 과정은 물론 차를 타면서 만족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함께 고민하고 고객의 니즈에 가장 부합하는 차를 추천해드립니다.”

고객이 최선의 답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메르세데스-벤츠 일타 강사인 셈이다.

2,000대 달성까지 더 많은 고객 만나고파

최근 전기차를 향한 관심이 급증하며 The new EQS가 주목을 끌고 있지만 S-Class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다. 이기복 부장은



“메르세데스-벤츠가 성능과 안전성, AS 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은 이미 많은 분이 알고 계세요. 재구매율이 높은 이유죠. 다음으로 디자인이 중요한데, S-Class가 내·외부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2021년 출시한 S-Class의 반응이 좋아 영업에 큰 힘이 됐다고 말한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성능과 안전성, AS 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은 이미 많은 분이 알고 계세요. 재구매율이 높은 이유죠. 다음으로 디자인이 중요한데, S-Class가 내·외부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기복 부장은 특히 대형 세단 라인업 중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최고라며 자부심을 내비쳤다.

“제가 아무리 고객에게 잘해도 차가 별로면 구매로 이어지지 않겠지요. 훌륭한 차와 함께했기 때문에 세일즈 마이스터가 된 듯합니다.”

그의 새로운 목표는 누적 판매 2,000대 달성이다. 더 많은 사람을 자신의 고객으로 삼을 계획이라면서도 너무 조급해하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니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후배 영업사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가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한 시간이 쌓여야 성과도 나오거든요.”

고객을 향한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한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세일즈 마이스터만의 책임감이 느껴진다. 성실하고 꾸준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이기복 부장이 목표를 이룰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2022

더클래스 효성 우수 사원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2022년, 불안정하고 힘든 시기임에도 최선을 다한 이들이 있었기에 더클래스 효성이 빛날 수 있었다. 그중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이에게 클럽(Club) 멤버라는 영광이 주어졌다. 현장에서 더클래스 효성을 이끌고 있는 그들의 소감을 들어봤다.



공적 사유
서비스센터 운영관리
최우수센터



최우수지점상
동탄 서비스센터

동탄 서비스센터 지점장 천영원입니다. 동탄 서비스센터가 최우수센터로 지정돼 지점장으로서 너무나 기쁘고 동탄 서비스센터 직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아니라 2022년 직원 모두 단합한 덕분에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2023년에도 회사 이익에 기여하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동탄 서비스센터가 되도록 잘 이끌겠습니다. 직원 모두 단합해 2023년 2년 연속 최우수 서비스센터 지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수서비스센터상
서초 서비스센터

고객과 회사를 위해 모든 센터가 노력하는데 그중에서 상을 받게 되니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차이, 조금의 남다름'으로 고객과 회사에 긍정적인 인식 하나를 심어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이 우리 부서의 고민, 전체 센터의 고민이 되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은 거울처럼 고객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영상으로 기억돼 언제든 다시 환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울고 웃곤 합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서초 서비스센터는 더클래스 효성이 추구하는 고객 가치를 담아내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될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고객과 회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하는 센터로서 2023년에도 고객에게 더 다가가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강남대로 전시장
김학일 부장

저를 다시 불러주는 고객들 덕분에 감사한 해였습니다. 정직하게 고객님과 인연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고객님이 주신 값진 상을 꼭 기억하고, 기본에 충실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인연, 항상 고맙습니다.



용인 수지 전시장
유용선 차장

아직 많이 부족한 저에게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배움을 위해 노력하며 솔직담백한 모습으로 임했던 게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수상을 계기로 더욱 노력해 고객분께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인연을 맺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공적 사유
연간 100대 이상
판매 달성



강남대로 전시장
최요한 과장

안녕하세요. 2021년 아너스에 이어 2022년 챔피언스 클럽(Champions Club)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 기쁨은 저를 믿고 맡겨주신 모든 고객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반도체와 경기 침체로 고생 많았던 2022년, 동료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전시장
권장섭 부장

작년에 371대를 판매하며 많은 고객과 소통할 수 있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제가 더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고객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400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가족 같은 딜러 권장섭이 되겠습니다.



공적 사유
연간 60대 이상 판매자



강남대로 전시장
문선희 부장

더클래스 효성에 오래 다니다 보니 고객 관리가 잘되고 신뢰가 생겨 재구매가 많아서 아너스 클럽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대로 전시장
이기복 부장

12년 동안 더클래스 효성에서 근무하며 챔피언스 클럽 5회, 아너스 클럽 6회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더욱 분발해 챔피언스 클럽에 동참하겠습니다.



송파 전시장
박관용 차장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송파지점 모두 열심히 힘을 냈고, 저 또한 그런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동료들 믿고 더욱 힘을 내 최고 영업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파 전시장
윤성혁 부장

2010년 입사해 올해로 13년째 더클래스 효성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늘 저를 성원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많은 분이 벤츠의 가족, 저의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늘 진정성 있게 신뢰를 다하는 영업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양 평촌 전시장
주용만 차장

영업 환경이 매번 어렵고 힘들지만 그림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객님들과 늘 헌신적으로 저를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도와준 저의 아내, 함께 고생해주신 지점장님 이하 팀원 및 동료 영업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메르세데스-벤츠라는 최고의 브랜드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멋진 환경을 만들어준 더클래스 효성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용인 수지 전시장
황지호 차장

2022년도 아너스 클럽을 수상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지점장님을 비롯해 지점원 그리고 팀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23년에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 전시장
김진환 부장

이번 동탄 전시장 최우수상과 아너스 클럽(Honors Club)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진심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동탄 전시장
유지상 부장

2022년 동탄 지점 아너스 클럽을 수상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도체 이슈 등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동료의 도움과 저를 신뢰해준 고객님 덕분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직원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 정자 전시장
유영운 차장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배님, 동료들과 함께 근무해 행복하며, 저를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송파 전시장
김진숙 차장

부족한 저를 늘 믿어주고 응원해주신 고객님 덕분에 매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안 전시장
강도빈 차장

많이 부족한 저에게 2022년 아너스 클럽을 수상하게 해주신 더클래스 효성과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판매뿐만 아니라 고객님들과 더 많은 공감으로 마음을 울리는 영업인이 되겠습니다.



천안 전시장
이은국 부장

2022년 아너스 클럽에 선정된 것에 큰 자부심과 기쁨을 느낍니다.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고 한 것과 메르세데스-벤츠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이런 감사한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더 온화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주 전시장
권용준 차장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자신과의 약속, 고객과의 약속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약속과 비전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청주 전시장
박병상 차장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클래스 효성을 대표하는 새로운 얼굴 더클래스 효성 최초 공식 앰배서더 ‘더스타즈’

지난 3월 31일 더클래스 효성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다. 바로 더클래스 효성 최초 공식 앰배서더 발대식.
치열한 경쟁을 뚫고 ‘더스타즈’로 활동하게 된 10명의 앰배서더를 소개한다.

Writer 지연 Photo 더클래스 효성



더클래스 효성 최초 공식 앰배서더인 ‘더스타즈’는 딜러사 최초로 운영하는 앰배서더 활동으로 전시장, 서비스센터, 인증 중고차 등 더클래스 효성의 각 분야 지원자 중 최고 실력과 에티튜드를 갖춘 이들로 1기를 꾸렸다. 더스타즈 활동은 무분별한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신뢰성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메르세데스-벤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좀 더 쉽고 편하게 다가가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더클래스 효성만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더스타즈는 더클래스 효성과 메르세데스-벤츠를 알리기 위한 대외 활동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의 관심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오너스 매뉴얼, 신차·전시장 소개, 직장인 브이로그, 자동차 토크 등 다양하고 개성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며 더클래스 효성의 발전에 더 큰 시너지를 불러올 더스타즈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더클래스 효성
Ambassador
THE
STARS
FIRST TEAM



채수환 차장 강남대로 전시장

이번 활동은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중 최초로 진행되는 만큼 책임감도 크고 부담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더클래스 효성 앰배서더로서 더클래스 효성과 메르세데스-벤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및 강점을 바탕으로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기대됩니다. 또한 더클래스 효성의 성공적 글로벌 확장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며 업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과장 동탄 전시장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탈모가 생겨 본의 아니게 모자를 쓰다 보니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영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모자를 벗고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움츠렸던 마음을 벗어나 당당한 영업사원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번 앰배서더 활동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쉽고 빠르게 차량 정보를 제공하며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발 빠른 소통 창구가 되고, 회사를 더 알리고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이끄는 데 선두 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다빈 대리 안양 평촌 서비스센터

더클래스 효성 앰배서더 1기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외부 사람들에게 회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내에서 직원 간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더클래스 효성을 찾아주는 고객은 물론 새로운 고객과 임직원들 모두에게 더클래스 효성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싶습니다. 익숙하고 비슷한 콘텐츠가 아닌 새로운 더클래스 효성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류성민 과장 용인 수지 전시장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유튜브와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저희 브랜드와 더클래스 효성을 홍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매우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기 앰배서더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사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도빈 차장 천안 전시장

더클래스 효성 천안 전시장과 메르세데스-벤츠를 알리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고, 또 개인 영업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광스러운 앰배서더 공식 1기에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클래스 효성 파이팅! 천안 전시장 파이팅!



최근용 부장 분당 정자 전시장

영상 제작과 유튜브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앰배서더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자동차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의 최고 딜러십인 더클래스 효성처럼 저도 벤츠 전문가로서 차량 정보와 저만의 영업 노하우로 메르세데스-벤츠를 알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의 영상으로 더클래스 효성에 '신뢰와 믿음'을 높이고 고객님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충인 부장 송파 전시장

송파 전시장 오픈 멤버로서 2011년부터 12년 동안 더클래스 효성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며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무분별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는 진짜 메르세데스-벤츠 고객들을 위해 앰배서더로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동료들에게도 올바른 모습과 모범적인 팀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과장 청주 전시장

더클래스 효성 청주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앰배서더 활동을 통해 청주 전시장에 딱딱한 곳이 아닌 친근하고 즐거운 전시장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자동차 소개 영상을 넘어 진짜 영업사원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현 과장 인제 중고차 하남 전시장

중고차 사업부를 대표해 앰배서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중고차라고 해서 브랜드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인지 더스타츠 활동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하고, 고객님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더클래스 효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욱 주임 서비스전략팀

전문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과 벤츠 코리아, 협력업체들과의 소통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클래스 효성은 고객 한 분 한 분의 만족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 없는 더클래스 효성의 열정적인 현장과 임직원분들의 모습을 앰배서더 활동을 통해 재미있고 따뜻한 콘텐츠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벤츠 최고 딜러사인 더클래스 효성의 앰배서더로서 더스타즈라는 이름처럼 따뜻하게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he Star is Reborn

Mercedes-AMG

The new SL 63 4MATIC+

메르세데스-AMG SL이 국내 출시 초입기에 들어갔다. SL의 시작은 1952년 우승을 위해 태어난 레이스카였다. 1954년 양산 스포츠카로 거듭난 이후 상위 1% 고객을 위한 고급스럽고 낭만적인 로드스터로 명성을 쌓아왔다. 7세대째인 메르세데스-AMG The new SL은 메르세데스-AMG 전용 차종으로, 국내시장엔 585마력을 품은 메르세데스-AMG The new SL 63 4MATIC+가 먼저 들어온다.

Writer 김기범(〈로드테스트〉편집장) Photo 메르세데스-벤츠 AG



신형 SL은 메르세데스-AMG의 최신 디자인 테마로 빛났다.

기존 2인승에서 아담한 뒷좌석을 더한 2+2 구성으로 실용성을 높였다.

7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메르세데스-AMG SL이 돌아왔다. 시작은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메르세데스-벤츠는 개발명 W194의 레이스카 300 SL을 공개하며 모터스포츠 복귀를 선언했다. 두 달 뒤부터 300 SL은 이탈리아의 밀레미리아, 프랑스의 24시간 내구레이스, 독일의 뉘르부르크링, 멕시코의 판아메리카나 등 지구촌 각지의 경주에서 우승 행진을 이어갔다. 1954년, 2년 동안 반짝 맹활약하다 은퇴한 300 SL이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이번엔 일반 판매용 스포츠카였다. 가격은 7,295달러로, 당시 메르세데스-벤츠 최고급 세단의 두 배 이상이었다. 하지만 불타나게 팔리며 부와 낭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300 SL 쿠페와 로드스터는 지금도 경매 최고가를 경신하며 수집가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낭만 겸비한 고성능 럭셔리 로드스터

이번에 국내에 출시할 메르세데스-AMG SL은 개발명 R232의

7세대다. 이번 신형은 이전과 다른 뚜렷한 특징이 있다. 우선 기존 2인승에서 아담한 뒷좌석까지 채긴 4인승으로 변모했다. 포르쉐 911을 의식한 변화다. 또 2001년 5세대 이후 고집해온 전동식 하드톱 대신 소프트톱으로 되돌아갔다. 접이식 톱의 무게와 부피를 줄여 효율과 스타일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다. 나아가 메르세데스-AMG The new SL은 메르세데스-AMG 전용 차종으로 거듭났다. 피 끓는 혈통을 감안하면 뒤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은 셈이다. ‘오리지널로의 회귀’는 이번 메르세데스-AMG The new SL의 핵심이다. ‘별이 다시 태어난다(The Star is Reborn)’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배경이기도 하다. 메르세데스-AMG GT가 인간 흥기급인 ‘제이슨 본’이라면, 메르세데스-AMG SL은 위트와 매너를 갖춘 ‘킹스맨’에 비유할 만하다. 원조의 자취는 외모에서도 묻어난다. 불끈 솟은 핏줄처럼 두 가닥 돌을새김한 보닛이 대표적이다. 기다란 보닛과 짧은 쾰부니의 우아하고 생동감 넘치는 비율도 고전적 로드스터의 향수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나머진 완전히 새롭다. 조약돌처럼 매끈한 표면 처리가 특징인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자인 테마로 재해석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메르세데스-AMG SL과도 닮지 않았다. 국내엔 메르세데스-AMG The new SL 63 4MATIC+가 먼저 들어온다. 최대출력 585마력의 V8 4.0L 가솔린 터보 엔진과 9단 자동변속기를 얹고, 0→시속 100km 가속 시간 3.6초, 최고속도 시속 315km의 압도적 성능을 뽐낸다. 실내는 스티어링 휠의 물리 스위치, 계기판과 센터페시아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각각 시각적 대조 그리고 기술적 조화를 이뤄 흥미진진하다. 메르세데스-AMG는 메르세데스-AMG The new SL의 보닛과 도어, 트렁크 뚜껑을 제외한 골격 무게를 270kg에 옥졌다. 1952년에 출시한 메르세데스-AMG SL도 항공기용 스페이스 프레임 도입해 획기적으로 무게를 덜었다. 극한의 다이어트는 메르세데스-AMG SL 역사를 관통하는 숙명인 셈이다. ‘Super Light’의 이니셜로 차 이름을 지을 만큼 무게에 집착한 이유가 있다. 가벼워진 만큼 빠르고 민첩하며 효율적인 까닭이다.



송풍구와 운전대, 12.3인치 디스플레이 등 요소는 익숙하지만 구성이 새롭다.



V8 4.0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고, 최대출력 585마력을 낸다.



제트엔진 터빈을 연상시키는 송풍구



오는 5월 14일 정식 개장하는 화개정원

왕족의 유배지, 실향민의 섬 교동도에 꽃피우는 화개정원

고려 시대 대학자 목은 이색이 다녀간 교동도, 조선 시대 연산군의 마지막이 기록된 교동도, 멸종 위기종 저어새가 찾아오는 교동도. 이 모든 교동도를 담은 화개정원에서 나비도 쉬어 간다.

Editor 정삼미 Photo 이효태

꽃길을 걸어요, 화개정원

6월이면 연꽃이 만개해 황홀경을 선사하는 고구려수지 너머로 화개산이 자태를 드러낸다. 해발 269m의 화개산은 교동도의 주산이자 5월 14일 정식 개관을 앞둔 화개정원으로 벌써부터 입소문이 자자하다. 21만3,251m² 규모의 휴식형 가족 공원으로 모노레일,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임시 개방했다. 주차장에서 정원 입구까지 순환하는 셔틀버스(오픈 카트)는 평일에도 방문객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하다.

화개산 북쪽 비탈진 사면을 지그재그로 돌아볼 수 있게 조성한 정원은 정식 운영을 앞두고 막바지 단장에 분주하고, 한 마리의 나비처럼 화개정원을 누비는 여행객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가득하다. 화개산은 ‘불 화(火), 덮을 개(蓋)’를 쓴다. 산세가 솥뚜껑을 닮아 붙은 이름이다. 이를 상징해 정원 곳곳에는 서로 다른 모양의 솥뚜껑 조형물을 만들어뒀다. 6개 이상의 솥뚜껑을 찾아 앱에 인증하면 소정의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정원 입구에서 정상까지 11만m² 부지에는 5개 테마 정원이 자리한다. 왕골, 꽃잔디, 암석원, 상사화, 섬도라지, 장미원, 사자발약쑥 등을 식재한 정원 곳곳에는 일명 ‘멍 때리기 존(Zone)’으로 물과 숲, 눈 뷰를 배경으로 선베드, 빈백, 파고라 등 편의 시설도 조성돼 교동도의 자연과 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노란색 화개산 모노레일에 몸을 싣고 화개정원의 모습을 찬찬히 담는다. 정상의 화개산 전망대까지 속도는 느리지만, 급경사를 만나는 구간에서 적잖은 스릴도 느낄 수 있다. 산, 바다, 들을 품에 안은 교동도의 풍광이 눈앞에, 발아래 펼쳐진다. 20여 분 만에 화개산 전망대에 도착하자 거센 바람이 몸을 감싼다. 바닥을 유리로 만든 스카이워크에 서자 가까이 고구려수지와 저 너머 북녘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오래



사진 속 차량 모델은
Mercedes-AMG GLA 45 4MATIC+



전 그날에는 황해도 연안으로 배를 타고 자주 왕래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까워도 우주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화개산전망대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교동망향대 또한 근거리에서 연백평야가 드리운다. 망원경에서는 어딘가로 마실을 가는지, 바쁜 길음의 북한 주민도 보인다. 교동도의 1세대 원주민은 대부분 고향 땅을 생전에 갈 수 없었던 실향민이다. 이렇게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고향을 눈앞에 두고 갈 수 없었던 통한의 세월은 교동도의 역사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시간이 멈춘 듯, 대룡시장의 감성과 교동도의 정서

6·25전쟁 당시 수많은 피란민이 교동도로 유입됐다. 황해도 연백에서 내려온 피란민들은 교동도 대룡리에 마을을 이뤘고, 자연스럽게 시장도 형성됐다. 오늘날 세대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이 관광 명소로 찾는 대룡시장이다. 1960~1970년대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시장은 세대를 불문하고 복고풍 매력을 찾아온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시장 골목은 성인 2~3명이 마주 오면 조금씩 비켜줘야 할 만한 폭에 전체 길이가 400m로 크진 않지만 차양을 두른 낮은 건물이 오밀조밀하고 가게마다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있어 어느 시장 구경보다 특색 있다. 대룡시장을 방문할 때는 남동쪽 출입구에 자리한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교동도에서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향교로 전해지는 교동향교도 만나볼 수 있다. 홍살문을 지나 완만한 길을 따라가면 뒤로는 화개산,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지는 곳에 향교가 자리한다. 교동향교는 고려 인종 5년(1127)에 화개산 북쪽에 지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향교를 세운 첫 기록이다. 이후 조선 영조 17년(1741)에 조호신이 지금의 위치로 향교를 옮겼으며, 현재 강학을 하는 명륜당, 고려 충렬왕 12년(1286)에



복고풍 매력으로 가득한 대룡시장



궁전다방의 청계알 띄운 생화차





고려 시대 대학자 목은 이색 선생이 머문 화개사

안향이 원나라에서 처음 공자 초상을 들여와 모신 대성전 건물 등이 남아 있다. 교동향교 바로 가까이에는 소박하고 안온한 정서로 가득한 화개사가 자리한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 시대 대학자 목은 이색 선생과 화개사의 인연을 기록하고 있다. 1341년 열네 살에 친구 2명과 화개사에서 독서와 공부를 즐긴 선생은 어느 계절, 화개산에 올라 한시도 남겼을 것이다.

“바닷속 화개산은 푸른 하늘에 닿았는데, 산 위 옛 사당은 언제 지었는지 모르겠네. 제사한 후 한 잔 마시고 이따금 북쪽을 바라보니, 부소산(扶蘇山) 빛이 더욱 푸르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선생의 시에는 푸른 하늘에 닿은 화개산과 푸른빛 부소산이 등장한다. 제사한 후 한 잔 마시고 선생이 바라본 부소산은 어디에 있을까. 꿈결에서나 볼 수 있을까. 간지러운 봄별 올라온 화개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본다. 꿈결에도 그라운 어른들의 고향 땅을.



일몰이 근사한 남산포



메르세데스-EQ 브랜드의
특징에 충실한 눈매



입체적 조명으로
깊이감을 더한
테일램프

궁극의 전기 프리미엄 SUV Mercedes-EQ The new EQS 580 4MATIC SUV

EQS SUV는 Mercedes-EQ의 순수 전기 프리미엄 SUV다. 공기저항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도 비율을 험클이지 않아 당당하면서 미끈한 외모를 뽐낸다. 7명을 소화하는 공간과 최고출력 400kW의 성능 모두 기함에 걸맞게 여유 만만하다. 무엇보다 물 흐르듯 매끄럽고, 소음·진동 없이 쾌적한 주행 감각이 일품이다. 한 번 충전으로 447km를 달려 충전에 대한 걱정도 덜었다.

Writer 김기범 Photo 서동현

Mercedes-EQ 브랜드 SUV의 기함을 만났다. The new EQS 580 4MATIC SUV이다. 7인승 순수 전기 프리미엄 SUV로, 미국 앨라배마주 터스칼루사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장에서 만든다. 덩치는 메르세데스-벤츠 GLS보다 살짝 작다. 하지만 5.1m가 웃도는 길이와 2m 넘는 너비, 1.72m 높이로 주차 칸을 입체감 있게 가득 채운다. 세 꼭지별 전기 SUV의 꼭짓점답다.

세단보다 나은 비율과 시야

겉모습은 Mercedes-EQ 고유의 테마를 녹여 넣어 빛났다. 유광 검정 패넬을 씌운 그릴과 헤드램프를 뒤집은 사다리꼴 윤곽으로 감싼 모양이 전형적인 Mercedes-EQ 얼굴이다. 멀리서 보면 위아래로 뽕뽕하게 부풀어 오른 The new EQS 세단 같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전반적 비율과 질감에서 세단보다 The new EQS SUV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보다 자연스럽고 존재감이 뚜렷해서다. 리모컨 키로 도어 잠금을 해제하면 4개 도어의 매끈한 표면에서 일제히 손잡이가 나온다. 육중한 덩치만큼 묵직한 도어를 열면 The new EQS 세단을 통해 익숙한 실내가 펼쳐진다. 최저 지상고와 플로어만 상대적으로 높을 뿐 운전대와 좌석, 대시보드의 레이아웃이 닮은꼴인 까닭이다. 세단보다 경중하다 보니

580은 해당 라인업의
정점을 의미한다.



평소에 감춰진 도어 손잡이는
이렇게 튀어나온다.

The new EQS SUV는 세단보다 우월한 양감 덕분에 비율이 한층 우월하다.

둥글둥글 귀여운 뒷모습.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하이퍼 스크린은 언제 봐도 압도적이다. 쓰임새도 무궁무진하다.



메르세데스-EQ의 기함 SUV답게 뒷좌석 공간도 넉넉하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야는 더 시원시원하다. 언제 봐도 56인치 하이퍼 스크린은 압도적이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동승석용 각각 17.7·12.3인치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세 구역으로 나뉘었다. 기능에 접근할 때 거치는 단계를 없앴고, 정보를 띄울 공간 또한 극단적으로 넓힐 수 있었다. 덕분에 동반석 앞에 '비전 아바타(VISION AVTR)' 콘셉트의 그림을 띄워놓을 여유도 생겼다.

쉽고 다채로운 사용자 경험

지난 20세기, 자동차 실내에서 스위치 개수는 첨단 기술과 장비의 가짓수를 상징했다. 가령 1999년에 나온 개발명 W220의 메르세데스-벤츠 S-Class는 앞좌석 도어와 대시보드, 스티어링 휠에 십은 스위치 개수만 100개가 훌쩍 넘는다. 따로 익히고 반복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 그러나 이젠 정반대다. 터치 디스플레이와 음성인식 시스템이 스위치를 몽땅 집어삼켰다. 나아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능을 파악하는 과정 자체가 흥미진진한 경험이다. 두꺼운 설명서와 씨름하던 과거와 대조적이다. 화려한 시각 및 즉각 반응 덕분에 최신 태블릿 압박상황 때처럼 설렘이 샘솟는다. 클라우드 서버와 머신 러닝 기반의 MBUX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터치 조작마저도 점차 필요 없어지고 있다. 광활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은 방대하다. 심지어 각 타이어의 온도(℃)까지 보여준다. 실내외 공기 질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데, 뒷좌석용 송풍구의 립스틱만 한 정보창에도 PM(ug/m³) 수치를 띄운다. 동반석과 좌우 뒷좌석 디스플레이는 센터페시아 메인 창 내용을 미러링하거나 각자 원하는 내용을 띄워 이용할 수 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언제나 친절하고 치밀한 길라잡이다.



EQS SUV와 함께라면 미세먼지도 걱정 없다. 다 걸러주니까.



변속 레버는 이렇게 생겼다. 조소한 크기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실내 공간

The new EQS SUV의 실내는 두루 여유롭다.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도어에서 지붕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이지만, 천장에 씌운 유리 덕분에 뒷좌석도 개방감이 뛰어나다. 3열 좌석은 성인도 충분히 앉을 만하다. 그러나 2열 좌석이 벤치 형태라 가운데 통로로 드나들 수 없다. 따라서 '7인승'을 잠재적 가능성으로 남겨둘 때 한층 다양하고 풍요롭게 쓸 수 있다. 고성능 내연기관을 품은 차는 시동 거는 순간부터 남다르다. 우렁찬 포효와 함께 숨통을 틔운다. 반면 The new EQS SUV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만 화려하게 불을 밝히며 조용히 깨어난다. 게다가 가속페달을 밟아도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 처음엔 '음소거' 버튼 누른 듯 빈틈없는 정적이 어색한데, 일단 맛들이면 웬만해선 엔진 차로 돌아가기 싫어진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중인 The new EQS SUV는 후륜 구동인 The new EQS 450+와 사륜구동인 The new EQS 450 4MATIC, The new EQS 580 4MATIC 세 가지다. 이 가운데 국내엔 최상위 버전인 The new EQS 580 4MATIC이 먼저 들어왔다. 앞뒤 차축에 각각 물린 2개의 전기모터로 사륜구동을 구현했다. 2개의 전기 심장이 내는 최대출력은 400kW(약 536마력), 최대토크는 87.5kg·m다.

한발 앞서 미래를 만나는 뿌듯함

쟁쟁한 전기 SUV 중 세 꼭지별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편안하고 우아한 승차감 때문이다. The new EQS SUV는 세단과 마찬가지로 대형 전기차용 플랫폼(EVA2)을 밑바탕 삼았다. 휠베이스가 3,210mm로, The new EQS 세단과 같은 배경이다. 하지만 SUV답게 키가 20cm 더 크다. 이 여유에서 비롯된 서스펜션의 포용력 차이가 승차감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특히 전동화는 탑승 경험을 극적으로 높은 비결이다. 가령 2.92톤의 공차중량이 자잘한 진동을 꺾꺾 눌러 다진다. 그 결과 The new EQS SUV는 한결같이 차분하고 나긋한 승차감을 유지한다. 앞뒤 좌석에서의 느낌도 크게 다르지 않다. Cd 0.26의 공기저항 계수 덕분에 풍절음도 희미하다. 장거리 여정의 피로를 줄일 결정적 요소로, 가족용 SUV의 핵심 가치다. 운전도 손쉬운데, 모든 반응이 물 흐르듯 매끈하다. 최대 4.5도의 뒷바퀴 조향 덕분에 주차나 유턴도 거짓말처럼 쉽다. 0→시속 100km 4.6초, 최고속도 시속 210km, 1회 충전 주행거리 447km 등 성능 제원도 풍요롭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환상적 간접조명과 화면에 둘러싸여 미끄러지듯 달리다 보면, 미래를 먼저 경험한다는 뿌듯함에 가슴이 웅장해진다.

The new EQS 580 4MATIC SUV 주요 제원	
길이×너비×높이	5,135×2,035×1,720mm
최대출력	400kW(약 536마력)
최대토크	87.5kg·m
구동 방식	네 바퀴 굴림
0→시속 100km 가속 시간	4.6초
최고속도	시속 210km
1회 충전 주행거리	447km
승차 정원	7인



마요르카의 중심 도시 팔마의
랜드마크인 마요르카 대성당

유럽인이 사랑하는 휴양의 섬

Mallorca in Spain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가장 인기 좋은 휴양지 중 하나로 스페인의 마요르카를 빼놓을 수 없다.
1년 내내 따뜻한 지중해성기후에 아름다운 해변과 바다,
저렴한 물가로 여행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요르카로 떠나보자.

Editor 지연 Photo Shutterstock



맑은 에메랄드빛 바다색을
차량하는마요르카의 해변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곳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 지중해를 즐길 수 있는 동부의 발레아레스제도에는 아름다운 해변과 멋진 날씨, 고유한 매력이 가득한 섬들로 유럽 최고 휴가지로 꼽힌다. 발레아레스제도는 '파티의 섬'으로 익숙한 이비사섬과 축구선수 이강인 소속 팀 덕분에 조금 알려진 마요르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메노르카와 포르멘테라는 섬들로 이뤄져 있다. 그중 가장 큰 섬인 마요르카는 넓은 면적만큼 여행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채워줄 요소가 많다.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크고 작은 해변은 물론이고 럭셔리한 호텔, 화려한 나이트 라이프, 고대 구시가지와 아름다운 드라이브 로드 등 휴가에서 바라는 그 어떤 기대도 모두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팔마의 높은 언덕에 위치한 벨베르성.
팔마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마요르카섬의 중심 도시, 팔마

마요르카는 바르셀로나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면적은 제주도보다 두 배 조금 안 되는 크기로 스페인에서 가장 큰 섬으로 꼽힌다. 마요르카를 여행할 때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하면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다. 대중교통이 많지 않아 렌터카를 이용하면 마요르카 여기저기를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다.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최고 여행지가 아닐 수 없다. 마요르카 여행은 대부분 팔마에서 시작한다. 공항이 이곳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팔마는 마요르카섬의 경제·문화 중심지이자 가장 큰 변화가다. 다양한 문화 체험은 물론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다. 게다가 좁고 미로 같은 지형이 많아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지역도 있어 걸으면서 좀 더 세밀하게 도시를 들여다볼 수 있다. 팔마의 중심에는 '마요르 데 팔마'라는 광장이 있다. '모든 길은 마요르 광장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마요르카 상업 중심지라 할 수 있다. 광장을 중심으로 식당과 카페가 자리하고 광장 주변에는 다양한 상점이 들어서 있어 쇼핑을 즐기기에 좋다. 마요르카 광장을 출발해 콜럼버스 대로를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팔마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마요르카 대성당을 만날 수 있다. 14세기에 지은 성당으로, 현존하는 유럽 고딕 양식 건축물 중 가장 높은 건물로 꼽힌다. 특히 스페인의 대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성당 일부를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유명해졌다. 이 성당에서 꼭 봐야 할 것은 동쪽 정면에 있는 고딕 양식의 장미 창이다. 지름 12,55m, 1,200여 개의 다채로운 유리 조각으로 구성된 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아름다운 햇빛이 성당 내부를 더욱 신비롭게 만든다. 그 외에도 다양한 벽화와 장식물이 방문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팔마 여행 시 놓칠 수 없는 또 한 곳은 원형 성벽의 고딕 양식 건축물인 '벨베르성(Castell de Bellver)'이다. 구 카탈로니아어로 '전



평화로운 팔마 해변의 모습

마요르카섬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고,
드라이브 도로가 잘 조성돼 있다.



망이 아름다운 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 성은 아름다운 건축물뿐 아니라 높은 언덕에 자리한 덕분에 성 꼭대기에서 팔마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팔마 방문 시 누구나 들르는 필수 여행지다. 벨베르성은 14세기에 지은 도성으로 스페인에서 유일한 원형의 성이다. 과거 마요르카 왕의 거주지였고, 지금은 팔마의 역사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립역사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밤에는 연주가 열리기도 해 음악과 함께 고즈넉한 성의 풍경을 둘러보는 낭만을 경험할 수 있어 야간 투어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스페인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낚것으로 경험하고 싶다면 아침 7시 메르카트 데 롤리바르 시장을 방문해보자. 다른 유럽 지역에서 잘 볼 수 없는 다양한 해산물을 비롯해 마요르카 현지 음식을 부담 없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스페인 음식인 타파스(tapas)와 신선한 굴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장에서 맛보고 싶은 다양한 음식을 포장해 와 해변이나 원하는 곳에서 즐기면 된다.



쇼팽이 그의 연인과 함께 요양차 머물렀던
카르투하 수도원

쇼팽이 사랑한 마을 발데모사

마요르카는 팔마 외에도 아름다운 작은 마을들이 있다. 그중 발데모사(Valldemossa)는 팔마에서 북쪽으로 18km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한 마을로 쇼팽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하다. 산 위에 있어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야 하는데 올라가다 보면 한눈에 보이는 마을 모습 덕분에 산길을 오르는 고단함쯤 잊게 만든다. 유럽 특유의 작고 예쁜 골목, 풍성한 꽃과 나무 덕분에 방문하는 이들의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다. 발데모사에서는 쇼팽이 연인과 요양차 머물렀던 카르투하 수도원을 방문해보자. 쇼팽이 머물던 방이 보전돼 있고 그의 피아노와 음악도 감상할 수 있어 쇼팽 박물관이라고도 불린다.

아름다운 항구와 해변, 나무 트램의 만남, 소예르

발데모사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름다운 항구 마을 소예르(Sdler)를 만날 수 있다. 소예르를 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동차를 이용해도 되고 버스나 열차를 타고 갈 수도 있다.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팔마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이용해보자. 1912년 레몬을 나르기 위해 만들어진 열차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지금은 관광객을 위해서만 운행되며 열차를 타고 가며 감상하는 마요르카의 풍경은 당신이 꿈꾸던 지중해 모습 그대로다. 소예르의 또 다른 명물은 나무로 만든 트램이다. 구시가지와 항구를 연결하는 트램으로 항구와 구시가지를 오갈 때 보이는 해안의 풍경은 절로 감탄을 부른다. 매주 토요일에는 구시가지에서 전통 시장이 열리니 놓치지 말 것. 그 외에도 바이크 렌털과 산악자전거 투어, 하이킹 투어, 캐녀닝 등 다양한 액티비티 투어를 이용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자.



한적하고 아름다운 항구로 유명한
소예르의 평화로운 풍경

마요르카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액티비티



포뮬러 원 자동차 섭투어

레이싱카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요르카만 한 곳이 없다. 마요르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포뮬러 원 자동차를 타고 섬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는 것. 전문 가이드가 동행하기 때문에 낯선 곳이라 걱정할 필요 없다. 연령대 제한이 크게 없고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 걸린다. 정차하는 구간에서는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 만족도가 높다.

고대 바다 동굴 체험

마요르카에는 천연 동굴인 코바 데 콜롬스(Cova de Coloms)가 있다. 오직 물길을 통해서만 탐험할 수 있는 곳으로 잠수복을 입고 반짝이는 석순, 지하 호수에서의 수영 등을 즐길 수 있다. 다채로운 천연 동굴의 모습을 감상하는 것은 단순한 모험 그 이상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온몸으로 깨닫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손끝 예술의 정수(精髓) 매듭장 정봉섭

고(故) 이어령 선생은 사람이 만나고 헤어짐을 맺고 풀고 잇고 끊는 끈의 관계로 나타내는 것이 한국인의 인간관이라며, 매듭은 그런 한국인의 마음을 시각화한 것이라 했다. 그렇기에 정봉섭 선생의 손끝에서 엮이는 매듭은 우리네 마음의 꽃이다.

Writer 강은진 Photo 임익순



한국 최고 매듭 명가(名家)

매듭은 실과 끈 등을 풀여지지 않게 묶는 것을 뜻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실용적이거나 장식적 목적으로 끈목을 다양하게 엮고 묶어 만드는 기법을 지칭한다. 끈목은 명주실이나 무명실을 모아 짜거나 꼬아 만드는 매듭의 재료다. 한자로는 많은 실이 모여 그림을 이룬다 해 다회(多繪)라고 하며, 우리말은 끈목이다. 그리고 이런 매듭을 만드는 기술을 지닌 장인이 바로 매듭장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정봉섭 선생은 한국 전통 매듭의 살아 있는 교과서로 일컫는 매듭장 보유자다. 선생의 집안은 한국 전통 매듭의 역사 그 자체라 평가받는 최고 매듭 명가다. 정봉섭 선생의 아버지는 초대 매듭장 보유자 고(故) 정연수 선생이고, 어머니는 2대 매듭장 보유자 고(故) 최은순 선생이다. 또 정봉섭 선생의 둘째 박선경 매듭장 전승교육사다. 그뿐 아니라 선생

하 2남 2녀 중 첫째와 막내가 매듭장 이수자로 4대 계보를 완성하며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봉섭 선생 집안사람들의 매듭 경력만 합쳐도 500년 가까이 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전승자는 정봉섭 선생과 또 다른 보유자 김혜순 씨, 그리고 박선경 전승교육사 세 사람뿐이다. 왜 정봉섭 선생의 집안이 한국 전통 매듭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하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매듭을 해야겠다, 하고 싶다… 혹은 뭐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매듭은 그냥 생활이고,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작업하실 때 옆에서 심부름을 도맡곤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정봉섭 선생은 부모님의 작업을 지척에서 도우며 눈으로 익히고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 정봉섭 선생



끈목을 손에 잡는 순간 정봉섭 선생의 눈매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매서워진다.

“매듭장으로서
마지막 꿈이 있다면…
내 뒤를 잇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상여에 매다는
대봉유소를 재현한
대작을 완성해보고 싶어요.”



때때로 흥내도 내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매듭을 엮고 있었다며 살짝 미소 지었다. 자리를 함께한 박선경 전승교육사 역시 어머니와 같다고 말한다. 대학 1학년 때 매듭장 전수자로 지정됐지만, 그전부터 언제나 어머니 작업을 도우며 매듭을 엮어왔기 때문이다. 그 래서일까. 정봉섭 선생의 집안사람들은 언제부터 매듭을 시작했는지, 왜 매듭을 선택했는지 등의 질문을 가장 어려워했다.

매듭 전 분야 섭렵

정봉섭 선생은 기량이 돋보이는 정교하고 빼어난 솜씨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봉술(술 머리에 금실을 감아 글자 문양을 표현하는 기능) 감는 기능을 복원해 전통 매듭의 원형 복원과 보존, 전승에 힘써온 것을 높이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매듭의 전 분야를 섭렵한 전무후무한 매듭장이다. 지금까지 한복 노리개 같은 장신구부터 사주단자에 맺는 동심결, 상여를 장식하는 유소 등 실내장식이나 의례 도구까지 제작하는 매듭장은 정봉섭 선생이 유일할 정도다. 그가 살아 있는 교과서라 불리는 이유다.

“가마나 상여를 장식하는 대형 유소를 만들 때… 그때는 국민학교교, 동네 국민학교로 가서 아버지는 학교 긴 담벼락을 따라 실을 푸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잡아라’, ‘올려라’ 하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도왔고요.”

정봉섭 선생이 매듭 전 분야를 섭렵할 수 있었던 것은 매듭장이던 양친 덕분이다. 무엇보다 아버지 정연수 선생이 결정적이었다. 1904년, 조선 시대 이래 매듭장 마을로 유명했던 서울 중구 광희동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제1대 매듭장 보유자 정연수 선생은 일제 강점기, 해방, 전쟁 등 격동의 시대를 지나며 전승 매듭 공예 기술의 끝자락을 붙잡고 모진 세월을 견뎌냈다. 매듭장 마을을 마지막으로 지킨 이가 바로 정연수 선생이다. 매듭은 전승 공예 분야 중에서도 제작자의 개인적 창의성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연수 선생이 배우고 활동하던 시기는 바로 전 시기의 기법을 고스란히 재현해내는 것이 매듭장으로서 기술적 완성을 의미했다. 일제 강점기 우리 전통문화 말살 정책과 한국전쟁 이후 생활·문화가 급격히 서구화되면서 자칫 끊길 뻔한 전승 매듭 공예 기술은 정연수 선생에 의해 지켜질 수 있었고, 딸 정봉섭 선생에 의해 지금까지 이어왔다.

“옛날엔 매듭장이 거의 남자였어요. 가마나 상여, 깃발 같은 걸 장식하는 대형 매듭은 조일 때 아귀힘이 아주 세야 하거든요. 끈목이 두꺼울수록 팔에 더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자가 하기는 어려웠죠. 매듭을 어설프게 조이면 모양이 잘 안 나오니까. 저는 여자라도 아버지 일을 도우며 배울 수 있었던 거고요. 매듭장으로서 마지

막 꿈이 있다면… 내 뒤를 잇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상여에 매다는 대봉유소를 재현한 대작을 완성해보고 싶어요.”
정봉섭 선생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남은 숙제이자 맺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매듭, 인내로 꽃피운 마음이어라

매듭의 작업 과정은 지난하고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저 예쁜 색 끈을 구입해 이리저리 엮으며 잔기술을 뽑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매듭은 명주실을 염색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누에고치에서 갓 분리한 생사(生絲)를 비눗물에 삶아 깨끗이 행군 뒤 견교질을 빼내 그늘에서 말린다. 그리고 천연염료로 염색한다. 그다음 영긴 실을 한 올 한 올 푼 뒤, 용도에 따라 4개, 8개, 12개의 실타래에 실을 걸어 끈목을 만드는, 일명 다회치기에 들어간다. 사실 여기까지는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손바닥 사이에 여러 가닥의 실을 넣고 비벼서 합치는 연사(燃絲) 작업을 몇 시간 하고 나면 손바닥이 퉁퉁 부어 다음 날 손을 못 쓰는 일이 허다하다. 박선경 전승교육사는 “손가락뼈에 주사를 맞으며 작업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왜 매듭을 인내의 예술이라 하는지 짐작되는 대목이다.

“한번 매듭을 잡으면 대여섯 시간은 금방 가죠. 그렇게 매일 하루 10시간 넘게 평생을 꼬박 앉아 일했더니 손가락도 변형되고, 몇 년 전에는 허리에 큰 수술도 받았어요. 하지만 매듭 일을 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해요, 앉아서, 매듭 하는 거지.(웃음)”
인터뷰를 하는 동안 정봉섭 선생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슬럼프나 그만두고 싶을 때는 없었는지 물어도 “그럴 때가 있었나?” 하고 처음으로 생각해보는 표정을 짓곤 했다. 그 모습을 보니 선생에게 매듭은 천직이고 천성이구나 싶었다.



가업을 잇고 있는 두 딸과 작업 중인 정봉섭 선생
(사진 왼쪽-둘째 박선경 매듭장 전승교육사, 사진 오른쪽-막내 박선희 이수자)



정연수 선생이 활동하던 시기만 해도 끈목을 만드는 다회장과 끈목을 두 가닥으로 늘어뜨려가며 각종 모양으로 매듭을 짓는 매듭장으로 구분돼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계화로 생산이 가능해지며 끈목장은 점차 사라졌고, 지금은 매듭장이 이 모든 과정을 다 하고 있다. 손끝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복잡하고 섬세한 매듭을 엮는 일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기계화로 인한 규격화, 대량화와 상반된 섬세함과 정교함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3년 전인 2020년은 아버지가 매듭을 시작하신 지 100년이 되는 해였어요. 3m 끈 하나를 짜는 데도 하루 이틀이 꼬박 걸려요. 그렇게 몇 날, 몇 달씩 정성스럽게 만들어도 작품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서글프곤 하죠. 하지만 시절을 탓하지 않고 전통 매듭을 지켜온 아버지처럼 저도 새롭게 시작되는 앞으로 100년을 이어주고 싶어요.”
정봉섭 선생은 손녀와 손주 며느리가 매듭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며 활짝 웃었다. 인터뷰를 통틀어 가장 환한 표정이었다. 선생의 매듭을 향한 사랑과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강한 책임감에 마음이 숙연해졌다. 가업을 통해 우리 문화에 헌신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 정봉섭 선생이다.



사진으로 만나는
매듭장 정봉섭의 작품 세계

손으로 엮은 마음의 꽃, 매듭

매듭장 보유자 정봉섭의 작품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기량과 끈기가 엮이고 감겨 있다. 색실을 감아 매듭을 엮고 봉술에 글자를 감는 기법은 올곧은 장인 정신이 없으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작업이다. 시대의 미의식과 장인의 손길, 그리고 색감이 정교하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의 매듭은 손끝에서 피워낸 꽃과도 같다.



- ① 은연화등 삼작노리개 / 길이 43cm
- ② 방장유소 118×200 / 길이 98cm
- ③ 옥 향갑노리개 / 길이 35cm
- ④ 대삼작노리개 / 길이 49cm
- ⑤ 편병장식 매듭 자리병 15×17cm(박선경 전승교육사 作)
- ⑥ 밀화삼천주, 산호가지 삼작노리개 / 길이 49cm
- ⑦ 망술줄 삼작노리개(박선경 전승교육사 作)
- ⑧ 매듭 오너먼트(박선경 전승교육사 作)



최고와 최고의 만남 드롱기와 함께하는 No.1 커피 클래스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 규제가 완화된 요즘 더클래스 효성은 고객과의 만남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지난 3월 구리 전시장에서는 커피 머신 브랜드 드롱기와 함께 커피 클래스를 개최했다.

문의 드롱기 고객센터(02-6000-9800)

더클래스 효성이 지난 3월 에스프레소 머신 세계 판매 1위의 No.1 커피머신 브랜드 드롱기와 함께 구리 전시장에서 커피 클래스를 열었다. 이번 클래스는 최고 자동차 브랜드와 최고 커피 머신 브랜드의 만남으로 눈길을 끌었다.

'드롱기와 함께하는 No.1 커피 클래스'는 더클래스 효성의 VIP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유명 바리스타 박형준이 강사로 나서 고객들에게 원두와 다양한 커피 메뉴, 드롱기 커피 머신에 대한 강의와 시연을 선보였다. 고객들은 여러 종류의 드롱기 원두로 추출한 커피를 시음해보고, 드롱기의 프리미엄 전자동 커피 머신 '프리마돈나 엘리트'를 사용해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라테 등 커피를 직접 추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드롱기 프리마돈나 엘리트는 4.3인치 풀 컬러 한글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테, 카푸치노, 플랫 화이트 등 총 17가지 커피 메뉴를 원터치만으로 제조할 수 있는 고품격 전자동 머신이다.

드롱기는 올해 더클래스 효성과 연간 협업하며 VIP 고객을 위해 각종 커피 클래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드롱기의 No.1 커피 클래스에는 '월드 라떼아트' 챔피언 최원재 등 최정상급 바리스타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신선한 원두에서 완벽한 커피 한 잔까지 스페셜 커피 모멘트를 추구하는 드롱기가 더클래스 효성 고객에게 더욱 차별화된 클래스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드롱기에서는 이번 클래스 참여 고객을 포함한 더클래스 효성 고객을 위해 특별한 혜택가로 드롱기 커피 머신을 구매할 수 있는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De'Longhi

커피를 아는 사람들의 최고의 선택



더클래스 효성 고객을 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

자세한 구매 방법은 고객센터 (02-6000-980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세계 판매 1위*

* 출처 : 독립조사기관, 2022년 전체 매출액 기준

마우리치오 카텔란 개인전 〈WE〉 삶의 폐부를 찌른 ‘미술계 침입자’

현대미술계의 가장 논쟁적인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이 한국에 처음으로 상륙했다.

카텔란의 대표작 ‘아홉 번째 시간’, ‘모두’, ‘우리’, ‘코미디언’ 등을 비롯한 조각·설치·벽화 주요 작품 총 38점을 만날 수 있는 유쾌한 전시 〈WE〉다.

Editor 강은진 Reference 리움미술관



마우리치오 카텔란 개인전 〈WE〉 전시 모습



‘모두’, 2007

현대미술계의 가장 논쟁적인 작가

리움미술관 입구에 노숙자가 누워 있다. 관람객이 힐끗힐끗 쳐다 봐도 꿈쩍하지 않는다. 보안 요원도 제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걱정된다 해서 신고하면 안 된다. 진짜 사람이 아니기 때문. ‘현대미술계 악동’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해 한국식으로 풀어낸 설치 작품 ‘동훈과 준호’다. 카텔란은 미국에서 전시할 때도 미국의 노숙자를 전시한 적이 있는데, 지나가던 경찰이 몸을 녹이라며 ‘노숙자’에게 차를 건넸다가 미동도 없고 숨도 쉬지 않는다며 911에 신고한 일화가 새삼 떠오른다.

특유의 블랙 유머로 예술·사회·정치 등 사회 전반적 가치 체계의 폐부를 찌르며 현실을 비평하는 카텔란은 현대미술계의 가장 논쟁적인 작가다. 미술사적 참조점을 오마주하거나 미술 제도를 재고하는 작업부터 죽음, 소외 등 개인적이면서도 인간사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를 다룬다. 자신을 희화화하며 부당한 현실을 신

랄하게 꼬집은 미디어 아티스트 찰리 채플린과 흡사하다. 기존 권위에 대한 풍자적 조롱을 서슴지 않는 위트와 역설적 유머의 정수를 보여준다. 카텔란은 경찰, 사제, 범죄자, 소년을 페르소나로 해 미술관을 가로지르는 동시에 잔인한 삶에 대한 애잔한 공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카텔란의 작품은 어렵지 않다.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로 극사실적 조각과 회화가 주를 이룬다. 미술사를 슬쩍도 용하거나 익숙한 대중적 요소를 교묘히 이용하는 표현력이 부조리 희극에 가깝다. ‘판의 규칙을 깨는 말쑥꾼’, ‘현대미술계 악동’이란 수식어가 단번에 수궁이 간다. 그의 블랙 유머는 거침이 없다. 비단 전시장 입구에 배치한 노숙자 조형뿐이 아니다. 서울 한 복판인 리움미술관에 자리한 수십 마리 비둘기, 전시장 한복판에 축 늘어진 말 형상에서 그의 유머를 확인할 수 있다. 미술관의 정적을 깨우며 북을 치는 소년은 또 어떤가. 이 부조화 속에서 카텔란은 관람객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무제', 2001



'그', 2001

굴곡진 인생사가 일으킨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

독특한 상상력과 표현력에서 그의 굴곡진 인생사가 묻어 난다. 카텔란은 정식으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요리사, 정원사, 가구 디자이너, 시체 씻기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직군을 거친 이력도 있다. 변곡점이 많은 삶은 전형적인 미술가 유형을 벗어난 시각을 갖게 했고, 현대미술계는 제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작가를 마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카텔란 스스로도 '미술계 침입자'로 정체화한 배경이 됐다.

그는 도덕적 합리성이나 계몽적 이상을 설파하는 예술가 역할을 거부한다. 사기꾼, 협잡꾼, 악동이라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릿광대를 자처할 정도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인간 본성을 정확히 꿰뚫고 삶의 본질을 적확히 찌르며 현실을 예리하게 꼬집는 비평가에 가깝다. 익살스럽고 냉소적인 일화를 선보이면서 무례하고 뻔뻔한 태도로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게 하고, 인식의 근간을 순식간에 뒤엎는다. 이러한 표현 방식 때문인지 그는 '뒤샹의 후계자', '앤디 워홀의 나쁜 친구들'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 작품에 주목!

〈WE〉 전시에서는 카텔란의 주요 작품 총 38점을 만날 수 있다. '아홉 번째 시간'은 카텔란을 논란의 중심에 세운 작품이다. 실존 인물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소재로 목시론에 의구심을 던졌다. 종교적 지도자의 파격적 설정을 적용한 모습은 카텔란이 권위를 다루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탈리아 문화의 주요 특징인 로마가톨릭교에 대한 풍자를 담아 공개 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운석에 맞아 바닥에 쓰러진 교황을 묘사한 이 작품을 두고 신성모독이라며 종교인·정치인이 돌을 치우고 교황을 일으켜 세우려 한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 광기 어린 통치로 이름조차 언급하길 거부하는 아돌프 히틀러는 '그'를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다만 우리가 익히 아는 그 표독한 모습이 아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공손히 무릎 꿇은 채 기도하는 히틀러다. 카텔란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동시에 로마가톨릭교를 풍자적으로 조롱한 것이다. 히틀러는 죽었지만 학살과 혐오의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여전히 유명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듯하다.

카텔란의 작품에는 개인 서사에 기반한 강력한 감정이 담겨 있다. 미술관 바닥을 뚫고 엉뚱한 곳으로 나와버린 듯한 표정의 '무제'는 어울리지 않는 예술계 옷을 입은 듯한 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또 시신을 연상시키는 9개의 대리석 조각 '모두'와 침상에 죽은 듯 나란히 누워 있는 2명의 남성이 등장하는 '우리'에서는 카텔란 작업의 오랜 모티브인 죽음에 대한 복합적 심상을 엿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바나나 작품 '코미디언'도 빠뜨릴 수 없다. 바나나 1개를 회색 테이프로 벽에 붙여둔 것



'아홉 번째 시간', 1999

으로 자칫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무려 12만 달러(약 1억 5,000만 원)에 팔린 엄청난 작품이다. 색이 변하는 바나나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데, 작가의 매뉴얼에 따라 테이프 각도까지 엄격하게 맞춰 작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채플린적 희극 장치를 마주하는 순간

2011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회고전 이래 최대 규모인 이번 전시는 1990년대 초기작부터 세계적 논쟁을 불러 모은 최근 화제작까지 두루 만날 수 있다. 전시 제목인 'WE'는 확장된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가 되는가',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카텔란의 작업을 관통하는 소재 억압·불안·권위·종교·사랑·나와 가족·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에 대한 생각은 모종의 연대를 불러일으킨다. 전시를 기획한 김성원 리움미술관 부관장은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우머의 힘으로 진지하면서 심각한 소재를 자유자재로 비틀며 신선한 자극을 던지는 작가"라며 "이번 전시에서는 도발적 익살꾼인 카텔란의 채플린적 희극 장치가 적재적소에서 작동하는 작품을 마주하며 공감, 열띤 토론, 연대가 펼쳐지는 무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관적이고 우울하며 냉소적인 '카텔란판 인간 희극'으로의 초대에 함께해보길.

관람 정보

전시명 마우리치오 카텔란 개인전 〈WE〉

장소 서울 리움미술관

기간 7월 16일까지(월요일 휴관)

예약 리움미술관 홈페이지 (www.leeum.org)



'코미디언', 2019

전통, 낡음을 벗고 트렌드를 입다

전통과 현대는 어울릴 수 없는 단어처럼 보인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든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결과물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 전승 공예가 그렇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이수자가 이어받은 전통 공예에 현대적 감각을 입힌 작품이 이 시대의 새로운 명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전통 가치와 현대 감각이 어우러진 일곱 가지 작품을 소개한다.

Editor 강은진 Photo 한국문화재단 KHome



채상 플로어 스탠드

국가무형문화재 채상장 이수자 김승우 ×
디자인 컨설턴트 김재경

채상, 오죽, 옷칠, 황동, LED 조명, 밝기 조절
스위치, 한지, 자작나무 280×200×1250

대나무를 가공해 작품을 만드는 채상 기법에
원재료인 대나무를 함께 배치했다. 전통 채상의
정체성에 기하학적 무늬와 심플한 색상으로
모던함을 표현했다. 250만 원



침척(걸)

국가무형문화재 화각장 이수자 이종민 ×
아트 디렉터 김주일

소뿔에 석채 채색 30×30×400

바느질할 때 쓰는 자를 침척이라 한다.
조선 시대 여인들이 자수를 놓을 때 사용한
침척이 현대적 오브제로 새롭게 태어났다.
소뿔을 투명하게 만든 안쪽에 그림을 새겨
채색하는 화각공예 기능 이수자 이종민의
솜씨가 돋보인다. 주로 병풍에서 볼 수 있는
'일월오봉도'로 한국적 미를 더했다. 160만 원



곰보종

국가무형문화재 유기장 보유자 이형근
구리, 주석 149×115

구리 78%에 주석 22%를 섞은 합금으로 만든 방짜 유기.
방짜 유기는 독성 물질에 반응해 식중독균을 멸균하는 특징이
있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곰보종은 명상할 때 쓰는 싱잉볼로
알려져 있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특징. 18만5000원



The New Horong

국가무형문화재 침선장 보유자 구혜자 × 디자인 컨설턴트 권중모
황동, Led(3000K), 실크(한복 소재) 150×170×675

전통 침선 기법으로 만든 보자기에 현대적 디자인을 더한 작품.
사각형의 침선 상자 안에 보자기를 배치했다.
빛이 공간 속으로 투영되면서 내부에 있는
보자기가 하늘거리는 무드를 느낄 수 있다.
133만~205만 원



공간 속 공간

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 이수자 양석중 ×
디자인 컨설턴트 서정화

은행나무, 참죽 350×90×85

은행나무와 참죽으로 만든 목제 화병.
실내 공간과 분리된 또 다른 공간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식물이 있는 공간에
나무 느낌을 더해 따뜻함과 생동감을
부여했다. 8만 원

색면 누비 스톨

국가무형문화재 누비장 이수자 최재희 × 디자인 컨설턴트 서현진
누비 440×1040

전통 바느질 기법인 누비 기법을 활용했다. 원단과 충전재에 따라 달라지는
누비 기법의 조형미를 재해석했다. 강렬한 색감과 누비 기법을 활용한 볼륨감이
돋보인다. 누비는 무릎 담요로도 쓸 수 있다. 70만 원



“럭셔리한 감성의 메르세데스-벤츠 액세서리 & 컬렉션 스토어 운영” 더클래스 효성 ‘2023 서울모빌리티쇼’ 참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했다.

더클래스 효성은 이번 행사에서 모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들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액세서리 & 컬렉션' 아이템을 전시·판매하는 컬렉션 스토어를 운영하고,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컬렉션 스토어 운영으로 더클래스 효성만의 세련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전시 공간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고급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만나볼 기회를 제공했으며,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금액대별 사은품도 증정했다.

또한 평일 오후 3~4시 진행된 타임 특가 세일 이벤트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인기 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등의 행사도 펼쳐졌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많은 고객이 더클래스 효성만이 갖춘 품격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컬렉션 스토어 운영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클래스 효성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클래스 효성 고객 중심 편의 서비스 도입에 적극 나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자동차 시장의 변화하는 수요에 발맞춰 고객 중심의 편의 서비스 마련에 나서고 있다.

더클래스 효성은 자동차의 디지털화, 친환경화라는 트렌드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동화 및 디지털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선제적 고객 중심 서비스 구축에 힘쓰고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벤츠 전기차 수요에 따라 '벤츠 공인 고전압 전문가'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를 일부 서비스센터에 배치하며 정비 품질 우수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 또한 테크니션이 설명해주는 차량 점검 내용을 동영상으로 확인하고 편리하게 견적 승인까지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씨잇나우'를 운영하며 서비스 품질 및 신뢰도 제고에도 나선다.

이 외에도 차량 등록일로부터 최대 6년, 25만km까지 각종 정비와 관련된 보증 수리 혜택을 제공하는 '더클래스 효성 보증 연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고품격 서비스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한다. 'AMG Circuit Day' 등 다양한 고객 초청 행사를 진행하며, 메르세데스-벤츠의 브랜드 가치와 철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클래스 효성만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네트워크 확장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의 품격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공식 후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여주 페럼 클럽에서 진행된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The EQA 250' 출원 이벤트를 진행했다.

더클래스 효성이 출원된 경품으로 제공한 The EQA 250 차량은 최첨단 디지털 기능과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춘 프리미엄 전기 콤팩트 SUV 차량이다. '메르세데스-EQ'의 디자인 철학인 '진보적 럭셔리'를 구현했으며, 66.5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돼 최대출력 140kW와 최대토크 375Nm의 힘을 발휘한다.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시트 콤포트 패키지, 나파 가죽이 적용된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 등 고급 사양도 함께 들어갔다.

더클래스 효성은 출원된 차량 후원 외에도 대회 기간 페럼 클럽 스타트 하우스에서 'The new EQE' 차량 전시를 진행해 골프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 현장 고객들은 전시 차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더클래스 효성 천안 전시장 시승 참가 신청도 할 수 있었다.

더클래스 효성이 출원된 차량 후원을 진행한 2023 KLPGA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은 올해로 2회째를 맞았으며, 이주미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국내 골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더클래스 효성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골프 팬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후원을 통해 고객 접점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클래스 효성 신사 서비스센터

더클래스 효성 신사 서비스센터는 Mercedes-Benz에서 인증한 최고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클래스 효성 신사 서비스센터에서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경험해보세요.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73

문의 : 02-540-7900



서비스센터 카카오톡 채널



신사 서비스센터

더클래스 효성

instagram.com/theclasshyosung/
www.youtube.com/@TheClass_Hyosung
facebook.com/ilovetheclasshyosung

더클래스 효성 서비스센터

■강남대로 서비스센터 02)570-1111 ■서초 서비스센터 02)3488-2400 ■도곡 서비스센터 02)575-7340 ■신사 서비스센터 02)540-7900 ■송파 서비스센터 02)2152-3333
■하남 서비스센터 02)3433-1900 ■안양 평촌 서비스센터 031)596-2600 ■죽전 서비스센터 031)786-6100 ■용인 수지 서비스센터 031)290-3700
■구리 서비스센터 031)579-0970 ■동탄 서비스센터 031)880-0288 ■청주 서비스센터 043)299-9090 ■천안 서비스센터 041)620-7070

The Class Hyosung

창립 20주년 축하 이벤트

더클래스 효성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더클래스 효성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높은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클래스 효성의
20주년을 축하해주세요!**

더클래스 효성과의 인연이 담긴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SNS에 업로드한 후 편집부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필수 해시태그

#더클래스 #메르세데스벤츠

#THECLASS

더클래스를 읽고 있는 모습,
가족들과 더클래스를 보는 모습
더클래스 효성 전시장에서 찍은 사진,
딜러와 함께 한 사진 등
더클래스 효성과 함께 한 행복한
시간을 담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본인의 SNS에 업로드한 후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클래스 효성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공지

2023년 <THE CLASS> 여름호에 발표

※ 당첨자에게는 선물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 잘못된 개인 정보 입력으로 인해 당첨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소 안내

애독자 편지 및 <THE CLASS>
인증샷 링크, 가족사진 보낼 곳

<THE CLASS> 편집부
theclass@hankyung.com

SPECIAL GIFT



1
보이스캐디
레이저 골프
거리 측정기 EL1
1명



2
메르세데스-벤츠
미니 트래블 백
5명



3
플래티넘
미니클 멀티펜
5명

독자 선물 당첨자

<THE CLASS>
독자 선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아래 명단에서 이름과 아이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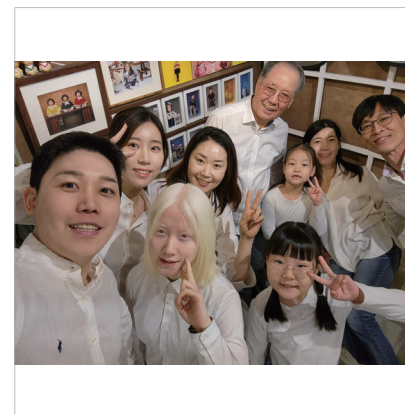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자 상품을 드립니다. 중복 신청이 많은 경우 원하는 상품으로 배송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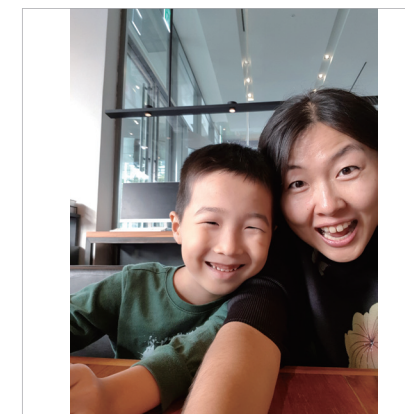
이정호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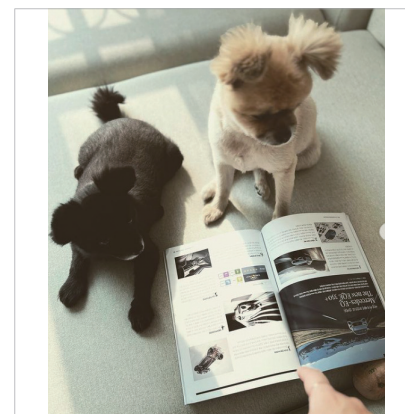
김진영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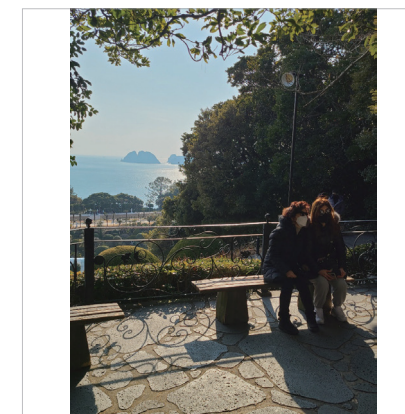
전신영 님



정창재 님



김선희 님



김수진 님

- 1.**
보이스캐디 레이저 골프 거리 측정기 EL1
이정호 님
- 2.**
리폴리클 삼푸&토닉 세트
김진영 님, 박수정 님, 전신영 님
- 3.**
메르세데스-벤츠 2023 캘린더&다이어리
세트
정창재 님, 김수진 님, 임숙희 님, 김선희 님,
황도희 님, 정혜원 님, 영선미 님, 한영호 님,
전원율 님, 이지훈 님
- 4.**
플래티넘 미니클 멀티펜
김미연 님, 손아름 님, 이수영 님, 김희지 님,
박민호 님, 김재우 님

발송 안내

2023년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제품 입고 시기에 따라 발송일이 늦어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소 안내

선물은 당첨 여부를 확인한 후 응모한 메일로
주소를 회신해주셔야 발송 가능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회원 정보 기입으로 선물을
받지 못한 경우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재발송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THE CLASS> 매거진 편집부
theclass@hankyung.com



더클래스 효성 하남 서비스센터

더클래스 효성 하남 서비스센터는 20개의 워크베이를 보유하고 있어 빠른 수리가 가능하며,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인증한 최고의 서비스 인력들이 일반 정비부터 판금 도장까지의 모든 정비 서비스를 고객님의게 제공합니다.

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 188
문의 : 02-3433-1900



서비스센터 카카오톡 채널



하남 서비스센터

더클래스 효성

instagram.com/theclasshyosung/
www.youtube.com/@TheClass_Hyosung
facebook.com/ilovetheclasshyosung

더클래스 효성 서비스센터

■강남대로 서비스센터 02)570-1111 ■서초 서비스센터 02)3488-2400 ■도곡 서비스센터 02)575-7340 ■신사 서비스센터 02)540-7900 ■송파 서비스센터 02)2152-3333
■하남 서비스센터 02)3433-1900 ■안양 평촌 서비스센터 031)596-2600 ■죽전 서비스센터 031)786-6100 ■용인 수지 서비스센터 031)290-3700
■구리 서비스센터 031)579-0970 ■동탄 서비스센터 031)880-0288 ■청주 서비스센터 043)299-9090 ■천안 서비스센터 041)620-7070

NETWORK



메르세데스-벤츠
강남대로 전시장 ·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전시장 **02-575-7500**
서비스센터 **02-570-1111**



메르세데스-벤츠
송파 전시장 · 서비스센터
전시장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0
02-3434-4000
서비스센터 서울시 송파구 정익로8길 6
02-2152-3333



메르세데스-벤츠
안양 평촌 전시장 · 서비스센터
전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74 **031-689-8900**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73
031-596-2600



메르세데스-벤츠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50 2층 1273호
031-8072-8900



메르세데스-벤츠
용인 수지 전시장 · 서비스센터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1-7 **031-5183-9200**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147 **031-290-3700**



메르세데스-벤츠
청주 전시장 · 서비스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28
전시장 **043-299-9000**
서비스센터 **043-299-9090**



메르세데스-벤츠
동탄 전시장 · 서비스센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92 (영천동 494-13)
전시장 **031-880-0200**
서비스센터 **031-880-0288**



메르세데스-벤츠
천안 전시장 · 서비스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47
전시장 **041-620-7000**
서비스센터 **041-620-7070**

“더클래스 효성이 최상의 서비스와
기술력으로 고객님의 마음을 읽겠습니다”



더클래스 효성
바로 가기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효성벤처타워
www.theclasshyosung.com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메르세데스-벤츠
구리 전시장 · 서비스센터
경기도 구리시 한다리길 13
전시장 **031-579-0900**
서비스센터 **031-579-0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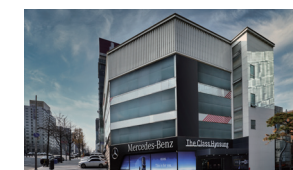
메르세데스-벤츠
분당 정자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7
031-786-6000



서초 서비스센터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55길 65
02-3488-2400



도곡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65길 9
02-575-7340



신사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73
02-540-7900



죽전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9
031-786-6100



인증 중고차 죽전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9 2층 **031-786-6171**



인증 중고차 하남
전시장 · 서비스센터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 188
전시장 **02-3433-1999**
서비스센터 **02-3433-1900**



인증 중고차 천안 전시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33, 1층 **041-555-5070**